

사랑은 해결책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해결책이 꿈꾸는  
바로 그 해결이다.

# 사랑은 이

KIM CHUL

사랑은 이

## 차례

---

|    |               |     |
|----|---------------|-----|
|    | 소개의 글         | 3   |
| 01 |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 6   |
| 02 | 사랑은 반사적이다     | 12  |
| 03 | 사랑은 기다림이다     | 16  |
| 04 | 사랑은 접붙임이다     | 21  |
| 05 | 사랑은 지우개이다     | 27  |
| 06 | 사랑은 읽기이다      | 32  |
| 07 | 사랑은 4형식이다     | 37  |
| 08 | 사랑은 성분차이이다    | 43  |
| 09 | 사랑은 신비로운 판정이다 | 49  |
| 10 | 사랑은 ‘더’이다     | 56  |
| 11 | 사랑은 새벽이다      | 62  |
| 12 | 사랑은 인정이다      | 68  |
| 13 | 사랑은 닮음이다      | 75  |
| 14 | 사랑은 양이다       | 82  |
| 15 | 사랑은 돌봄이다      | 89  |
| 16 | 사랑은 가꿈이다      | 96  |
| 17 | 사랑은 현재이다      | 103 |
| 18 | 사랑은 지식이다      | 112 |
| 19 | 사랑은 ‘안 괜찮다’이다 | 120 |
| 20 | 사랑은 패션의 완성이다  | 128 |
| 21 | 사랑은 그중에 제일이다  | 137 |

## 소개의 글

### 사랑은 해결이다

사랑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실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사랑은 진실을 호흡한다. 진실이 희박해지면 사랑은 그 숨이 가빠지고 결국 질식해 사망한다.

진실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사랑 아닌 다른 것으로는 진실할 수 없다. 진실된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다. 진실되지 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시대이다. 사랑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심산으로 사랑하기도 한다.

이런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살아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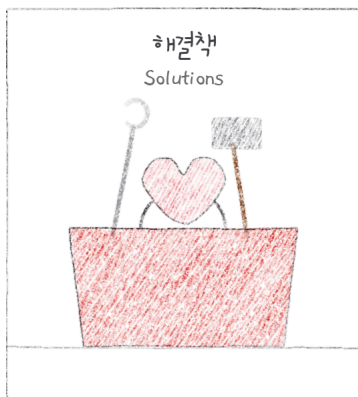
혹여 많이 성취하고 많이 소유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 없는 사람은 숨 없이 생기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이다. 진실된 사랑을 택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사람이 그 마음에 진실을 잃어버리면 모든 성공도  
실패로 경험될 뿐이다.

해결의 방편으로서의 사랑에는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반면 인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너와 나를 아름다운 인간 되어가게 하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정한 해결을  
경험하게 된다.

사랑은 해결로서의 성숙하고 고귀한 사람을 키워낸다.  
사랑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을 자라나게 하고 되어  
가도록 생기로 북돋아 준다. 어느 때이든 어떤 형편이든  
오직 네 팔로 함께 있기만을 진실되게 소망할 수 있게 된  
사람은 당장의 해결책은 미천할지 모르지만 결국의 해결,  
곧 예수님의 성육하여 하나 되는 사랑을 한껏 품은 너와  
나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진리는 이것이다. 사랑은 해결책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해결책이 꿈꾸는 바로 그 해결이다. 사랑이  
그중에 제일이다.



##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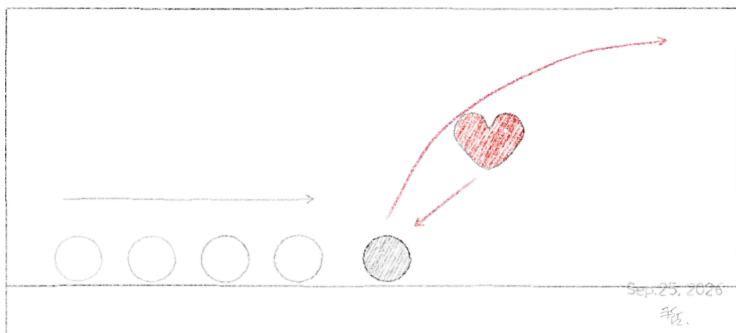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모두 이룬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인가? 율법의 모든 내용, 요구사항, 선과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루셨다는 것인가? 죽음의 형벌을 당함으로?

그렇다면 왜 그 형벌을 받으셨는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께서 죽으셨다. 죽음의 잔을 마신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하셨던 것이다. 사랑은 완성케 하는 힘이다.

기적을 행사하신 예수께서 구원의 대기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기적을 구하지 않으셨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죄성을 한껏 품은 인간은 어떤 품을 잡고 살아도 결국의 행동은 율법에서의 빚나감이다.

뉴턴이 깨달은 우주의 법칙 중 하나와 같이 한 쪽으로 이미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작용하고 있는 힘보다 큰 다른 힘이 그 물체에 임해야 가능하다.



사람이 입과 머리로 말고 실생활에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집요하고 강력한 힘으로서의 죄성이 아닌 다른 더 큰 힘이 임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은 힘이다. 사랑은 어떤 힘보다 항상 더 큰 힘이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일으키시고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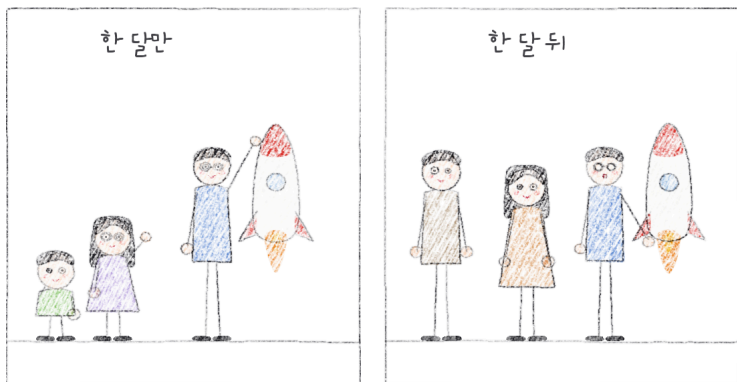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완전한 공의와 능력을 실재화시키는 그의 능력이다.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에게 신의 능력인 것이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기적을 원하고 구하고 좇는들 사람은 절대로 기적의 인생을 경험할 수 없다.

항공학에서 힘Power + 자세Attitude = 능력Performance이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다.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성경을 믿는 종교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힘이다. 공의와 거룩은 그의 태도이다. 힘과 태도가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에서  $E = mc^2$ 이다.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그의 지식과 법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사용해 본다.

한 예로 내가 초광속으로 우주를 여행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한 달만 잘 지내고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떠났다. 한 달 뒤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없고 아이들의 아이들이 중년이 된 채로 살고 있다.



광속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에서의 시간은 지구에서의 그것과 같지 않다. 엄청난 운동에너지로 우주를 가르는 우주선의 속도가 증가하면 그 우주선의 질량은 함께 증가하고, 공간은 적어지고, 그 안에서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느려진다.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무게이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속도는 무소부재로 설명될 정도로 속도의 개념이 무색해지게 하는 빠름이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게와 그 속도로 나에게 오신다.

이때 그의 규모는 더 이상 광대, 측정 불가능한 무한의 크기가 아니다. 예수만큼 아니 나만큼이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힘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뜻이요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 이 힘을 품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할 때 그 결과로서의 행함이 기적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랑, 오직 사랑으로 그의 33년의 인생을 사셨다. 그 힘으로 사셨고 죽으셨다. 이러한 예수의 인생이 위대한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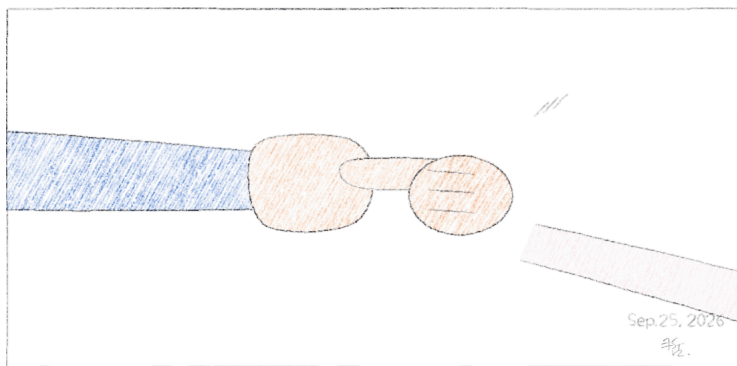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다. 베드로는 대답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맞이하실까?  
바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일 것이다.

사랑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이다.  
이 질문에 대한 Yes는 모든 죄인을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워 주는  
놀라운 비밀이다.

## 사랑은 반사적이다

갓 태어난 아기의 뽀송한 손이 귀여워 살짝 만져 본다. 이럴 때면 예외 없이 조그만 손을 조물거리면서 손가락을 잡으려고 한다. 신생아의 ‘잡기반사Neonatal Grasp Reflex’이다. 손바닥에 무언가 닿으면 그것을 반사적으로 잡아 쥐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다.



신생아는 성인이 어떤 상태에서부터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의 시작점이다. 그때 보였던 행동들은 자라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진 행동들의 배후인 인간 본연의 본능은 여전히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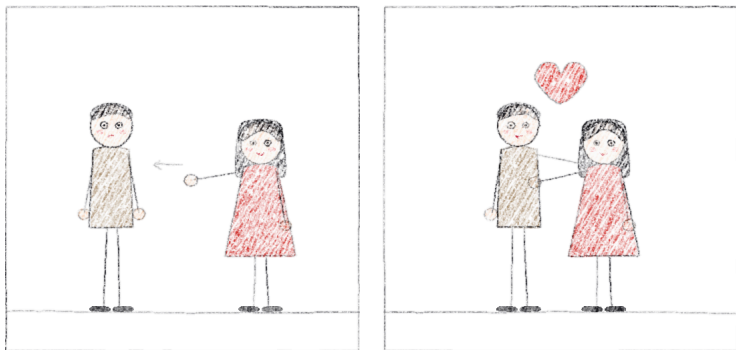
인간 본연의 본능은 신생아들이 보여 주는 바, 누군가의 도움을 찾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필요하면 달라고 목청껏 운다. 배고플 때, 입 주위에 아무것이라도 가져다 대면 입을 더듬이 삼아 간절히 젖을 찾는다. 불안한 마음에 힘없는 작은 손이라도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쓴다.

모두 신생아 단계의 반사적 행동으로 설명되는 인간 처음의 특질들이다. 성인이라는 발달된 성장 단계에서는 반사적 행동이 환영받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학습을 통해 의도적으로 줄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의 행동으로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도 의식의 필터에 닿기 전 무의식의 단계에서는 유아기 때보다 오히려 구체화되고 심화된 상태의 반사적 반응들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 어린 아이처럼 먹고, 입고, 살려고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더불어 먹고, 누구를 위해 입고,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마음 깊이로는 이에 반응하면서, 밖으로는 사회화, 학습화된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사랑에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사랑의 젖을 그 마음의 입으로 찾으며 살고 있다. 사랑의 사람, 자신과 함께 사랑으로 살 사람의 손이 닿으면 어린 아이 손처럼 그것을 꼭 쥐는 리플렉스Reflex를 보이며 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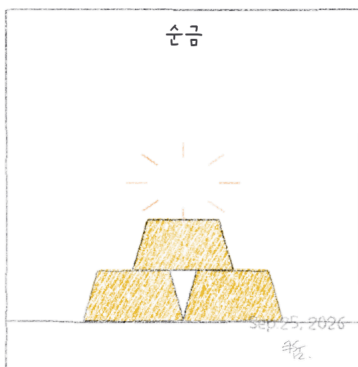
인간은 예수를 찾고 있다. 예수께서 주신 그의 삶과 피는 인간이 반응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랑이다.

양식으로서의 살을 먹을 때 지금 이 순간도 날 사랑하는  
이가 있음에 배부르게 된다. 약속으로서의 피를 마실 때  
나를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던 모든 죄가 힘을 잃고  
평안과 확신을 주는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된다.

사랑은 반사적이다. 사랑을 받고자 함에도 사랑을 주고자  
함에도 사랑은 반사적이어야 참사랑이다. 영혼의  
리플렉스로서의 사랑... 젖을 찾고 있는 입과 젖을  
물리고자 하는 가슴을 하나 되게 하는 인간의  
고귀한 본성이다.

## 사랑은 기다림이다

청동과 순금... 청동은 빛이 변하고 금은 변함이 없다.  
구릿빛이 하늘푸른색으로 바래진 청동은 오히려  
그 모습으로야 제값을 한다. 순금은 변색 없이 하나로  
있어야 금의 가치를 다한다.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혹은 변할 수밖에 없다’.  
한 쪽만 가지고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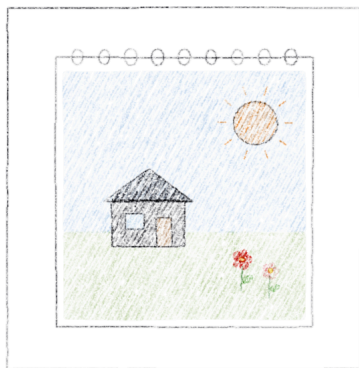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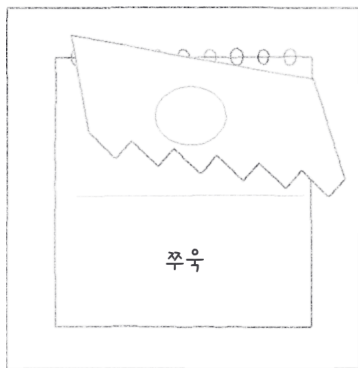
사랑은 불변이라고 말하는 이에게는 청동을, 사랑은 변해가는 것이라고만 하는 이에게는 순금을 선물하고 싶다.

변색하는 청동은 변질되지 않는다. 고매한 품격으로 나아지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순금은 무념무감한 것이 아니다. 하나를 품어내기 위해 다른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다.

청동과 순금... 모두 시간 속 기다림으로 가치가 드러난다. 청동 아닌 것은 녹으로 변질될 것이고, 순금 아닌 것은 아닌 만큼 색 바래져 있을 것이다. 청동과 순금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영광의 순간을 준비한다.

사랑은 변해야 하고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의 높이와 넓이 그리고 그 깊이와 맑기가 더욱 사랑스러워져야 한다. 또한 사랑의 대상을 향한 사랑이 순수와 진정으로 하나로 지켜져야 한다.

사랑은 기다릴 필요 없는 둘의 시간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사랑은 둘의 기다림으로 진행되고 완성되어 진다. 기다림 없는 사랑은 시작만 하는 사랑이다. 하얀 스케치북 종이에 연필로 밑그림만 그리고 ‘쭈욱’ 찢어내는 잠깐 사랑이다.



기다림을 통해 사랑은 색도 입고, 모양도 갖추고, 무언가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의 이야기를 모두 표현한 걸작품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그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는 달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다린다. 어리석은 자들은 사실을 앞에도 삶으로 기다리지 않는다. 시간을 보낼 뿐이다. 기다림은 그 얼굴이 여리고 약한 듯 수줍은 규수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마음과 손과 발은 성실한 일꾼의 것이다.



기다림은 본질적으로 능동적 수동태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기다리는 바가 이루어지고, 기다리는 대상을 다시 만나는 일이다. 그러나 기다림의 세월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간이 아니다. 수동적인 시간이다.

윌리엄 바클리가 말한 대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최고의 방법은 기다리는 중에도 그분의 함께 있음 **The presence of Christ**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다’. 하여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이다.

사랑은 기다림으로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이 된다. 기다림 끝에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때 하늘 푸르게 깊어진 청동 파이프를 통해 오르간의 연주가 흘러 나온다.

일절 변함없이 자신을 지키고 있던 순금 벽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안에서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기다리며 사랑하는 삶은 완성될  
사랑의 전주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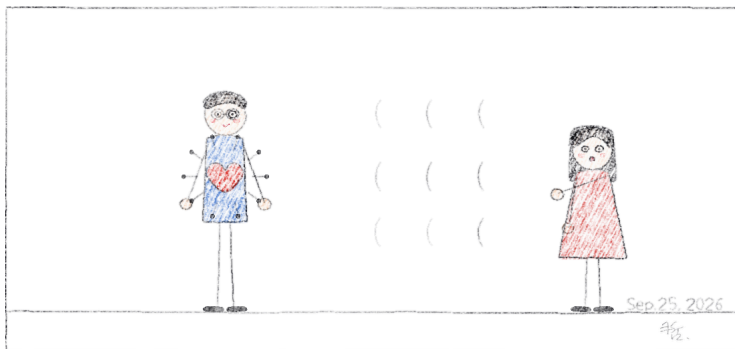
사랑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을 통해서만 삶은  $1+1=1$ 을  
정답으로 인정해 준다.

## 사랑은 접붙임이다

사람과 외부는 피부가 경계境界이다. 외부로부터 내게 향해 오는 것들은 피부에서 감지된다. 자유신경종말Free nerve endings, 마이스너소체Meissner's corpuscle, 메르켈촉각소체Merkel's disk는 피부표면에 전달되는 약한 자극을 감지한다. 루피니소체Ruffini corpuscle와 파치니소체Pacinian corpuscle는 보다 강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감지한다.

미세감각기관Microreceptors들은 평상시에는 불규칙적인 신경신호를 띄엄띄엄 보내다가 피부에 무언가가 접촉되면 신경자극신호를 증폭시켜서 뇌에 전달을 한다. 보이지 않는 공기의 움직임에서 내려치는 주먹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자극은 피부에서 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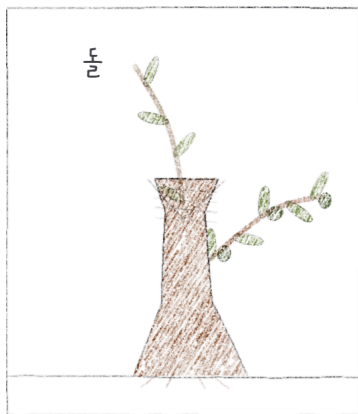
나 아닌 다른 것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피부에 배치된 감지기관들만큼 인간 마음도 복잡예민하게 발달된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이의 말과 행동, 생각과 그 표현에 자극 받는다. 사소한 자극에서 생명을 좌우하는 자극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의 다가옴은 마음에서 감지된다.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과 그 표현... 모두가 그 사람의 마음이다. 결국 다른 이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질 때 마음은 그 자극을 감지하고 분석을 의뢰하는 신호를 보낸다. 그것이 유쾌한 자극이든 불쾌한 자극이든 감지하고 분석하는 기관으로서의 마음은 그와 나와의 경계의 증거일 뿐이다.

사랑은 접붙임이다. 사랑은 평상시 수많은 ‘너’ 가운데서 ‘나’를 지켜 주었던 마음에 위치한 감각기관들이 모두 소멸하게 되는 순간이다. 사랑은 자극으로서의 다른 이의 마음이 내 마음 중앙에 내려쬐히는 순간이다. 마음이 더 이상 감지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감지기관이 아닌 새생명을 잉태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다. 참감람나무의 줄기는 아예 깎이고 파인다. 이런 정도면 자극이 아니라 변이變異이다. 하등품의 상징인 ‘돌’자가 붙은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가 자신에게 오는 길을 내주고 안으로 들인다. 돌감람나무는 더 이상 ‘개’자가 붙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온전한 올리브 열매가 그 가지에 맺히게 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두려움을 품고 산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더해가는 외로움과 깊어가는 고독으로 ‘돌’과 ‘개’의 열매를 내며 산다. 서로가 서로에게 ‘참’이 붙는 사귄과 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마음의 감각기관인 두려움을 때로 거부하고 참사랑을 선택할 때만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 어린왕자에게 여우가 부탁한다. ‘자신을 길들여 달라...’ 서로 더욱 알아가고, 위해 주고, 이해해 주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접붙임 해달라는 의미이다.

사랑은 닿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 사랑은 지금은 상처를 내더라도 영원히 서로 붙어 하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랑은 밑동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The sap of life을 위로 품어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데 그 소망이 있는 것이다.

사랑은 접붙임이다. 내가 이 땅 작은 예수가 될 때  
접붙임의 놀라운 축복은 주위로 선물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다. 하여 사람이 되셨다. 그는 그가 만든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그가 창조한 여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는 그가 빚어 만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받아졌다. 말씀이신 그가 말구유에서 말할 수 없는 아기가 되어 우셨다 (어거스틴)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 전능한 오른팔이 연약한 사람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 모든 인간의 말로도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말씀The Word 되신 주님께서 말 못하는 아기로 우는 것... 모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에게 접붙이기 위해 스스로 허락하신 찢김과 꺾임과 패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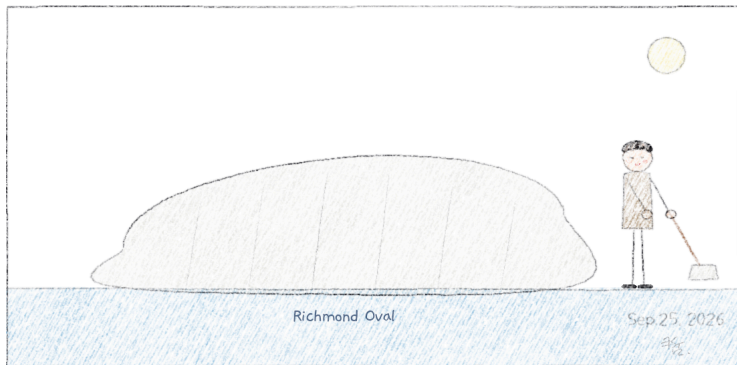
## 사랑은 지우개이다

2010년 동계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리치몬드오벌 Richmond Oval 경기장이 있다. 이제 갓 완성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다. 바다와 만나는 강어귀에 거대한 달걀이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듯 하나의 장관을 연출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기장을 개방한 적이 있다. 잠시 들어가서 둘러 보았는데 사람들 모두 그 규모와 시설에 만족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건물 곳곳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청결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완공이 지연돼서 시공업체나 시청 직원들 모두 애를 먹고 있는 중에 이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이다. 사실 주차장이나 건물 주변 조경은 아직도 완성이 먼 듯 조야해 보였다.

방문객들이 출입하고 건물을 둘러보는 동선 근처만 정리하기도 버거운 스케줄이었다. 그런데 내부 전체가 깨끗했다.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누군가 밤낮으로 청소하느라 녹초가 됐겠구먼…’



뻔한 이야기인데 무언가 핵심을 전해주는 언급이었다. 새 건물은 새로 짓느라고 더러워져 있고, 오래된 건물은 그 세월만큼 흙 가고 더럽혀져 간다. 새 건물이든 오래된 건물이든 그분위기가 청결하다면 바로 ‘그 누군가’ 때문인 것이다.

건물을 잠시 의인화해 보자면… 건물에는 때가 묻게 돼 있다. 쓰레기들이 놓이게 되어 있다. 사람들의 신발 자국이 찍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건물은 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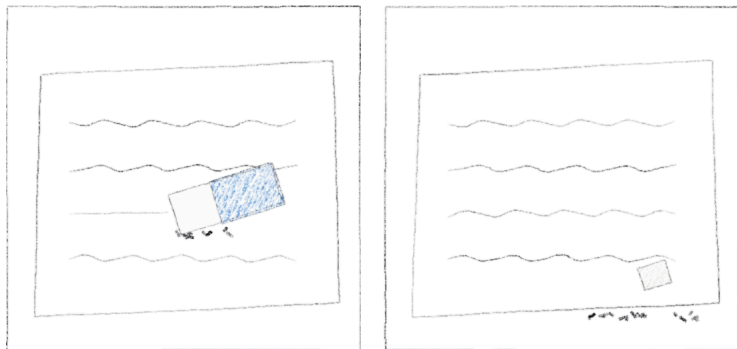
사람도 자기 등의 때를 해결할 수 없듯이 건물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 곧 끌어 주고, 닦아 주는 손이 필요하다.

연필로 글을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운다. 종이에 묻은 흑연 가루가 점착성이 강한 고무 혹은 플라스틱 지우개에 묻어 떨어지는 원리이다. 지우개로 지울 때 보면 종이는 가만히 둔다. 지우개는 오직 종이 위에 있는 청소되어야 할 오류들만 처리할 뿐이다.

종이에게 있어서 지우개는 그 ‘누군가’이다. 지우고 나서도 자국은 남는다. 그러나 누구도 그 자국을 종이에 쓰여진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 잘 쓰여진 글들을 읽게 될 뿐이다. 물론 수백 수천 번 계속 똑같은 자리를 지우면 종이가 결국 파손되고 새 종으로 교체돼야 하겠지만, 지우개 책임은 아니다.

지우개는 종이에 있는 먼지, 쓰레기, 더러운 흠집들로서의 내용을 자신에게 묻힌다. 볼펜 글씨를 그져 복개覆蓋하는 수정액White out하고는 다르다. 지우개와 종이 사이에는 언제나 누구도 싫어하는 검은 지우개 가루가 남는다.

그 가루는 지우개에는 제 살이었고 종이에게는 자기 더러움이었다. 지우개는 자기가 더러워짐으로 종이를 깨끗이 해 준다. 지우개는 더러우면 안 된다. 그래서 더러워진 만큼의 자신을 버린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다.



영어로 지우개를 Rubber라고 한다. 직역하면 고무지우개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우개하면 그 단어를 사용한다. 또 다른 단어 Eraser는 수정액이든 지우개든 제거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반면, Rubber는 ‘어떻게 How’에 관심이 있다. 때를 밀듯 누군가가 문질러 주는 것이다. 닳고, 쓸고, 떨어 주는 것이 Rubbing이다.

사랑하는 이들은 서로에게 지우개가 되어야 한다 Lover is to be a rubber. 사랑은 지워주는 것이다 Love is to rub.

사랑을 건물 규모나 외관으로만 시작할 수 있다. 사랑을  
지금껏 쓰여진 상대의 종이글을 읽어 보고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우개로서의 내가 없는 사랑에는 오직  
납아가고 더러워지는 건물, 실수와 오류로 채워지는  
종이만이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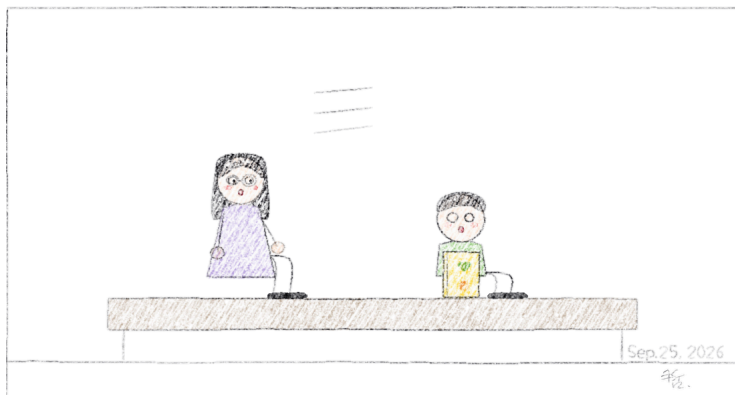
알렉산더 포프가 말했듯이, ‘죄는 인지상정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다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우셨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검디검은 죄를 적셨다. 그리고 그 피를 모두  
쏟아내셨다. 더러움을 씻긴 우슬초는 땀과 물이 되어  
모두 쏟아졌다. 지우개로서의 그분의 생은 십자가에서  
닿아 마감되었다.

‘그 누군가’ 없는 우리 삶은 ‘더럽게 더욱 더럽게,  
추악하게 더욱 그렇게, 이전 거짓보다 더욱 거짓되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시 보아도 무엇이  
쓰여졌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지우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흰 눈보다 더, 어린양의 하얀 털보다 더, 세정을  
마친 순백의 옷보다 더 깨끗한 인생’이 되었다.

## 사랑은 읽기이다

모양은 네모이고 하얀 바탕에 검은 낙서들이 줄지어 있다... 두 돌 지난 아들 녀석이 손에 쥐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동화책’이다. 까막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보여 지는 이미지가 전부이다. 180° ~ 200° 범위의 시야를 가진 두 눈에 맏히는 상像 그대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옆에 함께 앉아 있는 열 살 딸아이가 고개를 살짝 돌려 그 책에 관심을 보인다. 얼마 전부터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동생보다 눈이 안 좋다. 나안裸眼으로는 상像을 제대로 못 본다. 이런 아이가 동생이 잡고 있는 책을 줄줄 ‘읽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동생이 책을 거꾸로 들고 있는데도 아주 잘 읽는다.



‘읽기Reading’는 글을 깨우쳐야 가능하다. 문맹文盲도 글씨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읽을 수는 없다. 글을 아는 사람은 글을 보고 읽지 않을 수 없다. 눈을 뜨고 있는 한 글은 읽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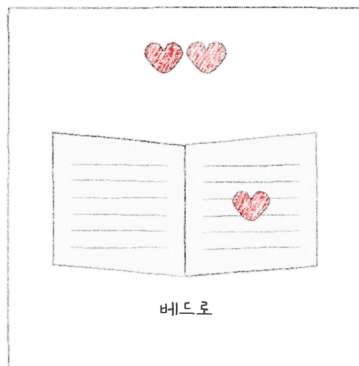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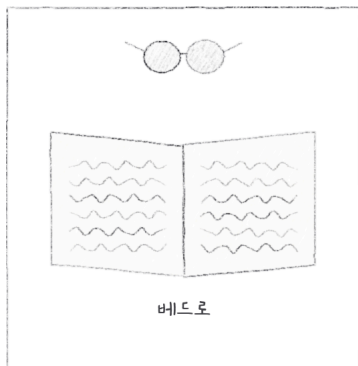
‘읽는다’는 것은 글씨를 쳐다보고 그 글에 담긴 뜻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누군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하였다. 시신경은 뇌에 글꼴 이미지를 전달한다. 언어체계를 습득한 사람의 뇌는 시각정보를 해독하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

시력을 완전히 잃은 장애우들도 점자책을 읽는다.

인간의 태생적인 능력인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후천적으로 점자를 습득해서 독해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볼 수 없어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사람의 됴됨이로 말하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친구를  
다부지게 배신한 인간이다. 말 바꾸는 겹쟁이이다. 현재  
상황을 보자면 처자식 버리고 집 떠나면서까지 목표했던  
일이 완전히 실패한 참담한 처지이다... 사랑의 언어를  
익히지 못한 문맹이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 책’이다.

아호雅號는 반석磐石이다.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천국의 복서Boxer, 록키Rocky이다. 천국의 열쇠  
곧 진리의 고백이 그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예수의 목숨만큼 소중한 그의 양들을 돌보는  
거룩하고 고귀한 직職에 임명된 인물이다... 사랑이며,  
말씀이신 주님의 눈으로 읽혀지고 있는 ‘베드로 책’이다.



보이는 것은 읽혀질 때야 비로소 그 뜻이 생명을 품게 된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까막눈이다. 상대의 외모, 행동, 말로만으로 그를 취한다. 상대 역시 동일하게 대응한다. 이러다 보니 서로를 가까이에서 정확히 보고 있지만, 서로를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의 매일을 살게 된다.

사랑은 읽기이다. 예수께서 언행심사言行心事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베드로를 보셨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를 읽으셨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책’에 ‘베드로의 언어’로 쓰여진 사랑의 글들을 읽어 내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도 건네지 않으셨다. 베드로를 읽고 모두 이해했기 때문이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가 사랑의 언어를 깨우치는 순간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다. 베드로는 그 말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베드로야,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구나’. 예수와 베드로는 서로를 사랑으로 읽을 수 있었기에 이심전심以心傳心の 관계가 되었다.

우리 역시 글 읽는 법을 깨우치기를 원하며 베드로는 권면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 사랑은 4형식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God gave his one and only Son to the world’.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福音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리眞理이다. 인류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문장文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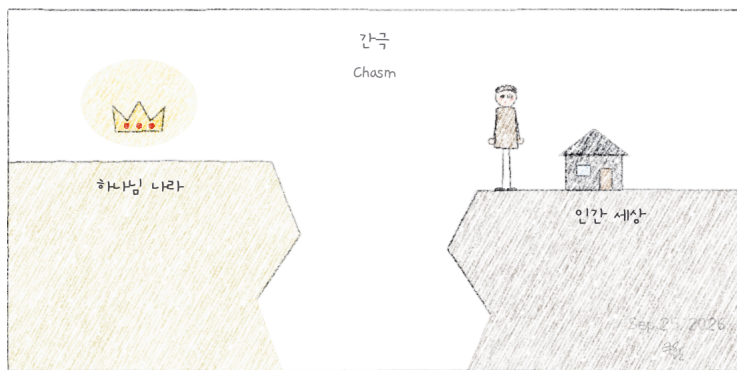
언어학적으로 진리의 복음은 문장 형식이 4형식이다. 하나님이 주어主語이다. 아들 예수와 죄악된 세상이 목적어目的語이다. ‘주다Give’가 동사動詞이다. 4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를 특별히 ‘수여동사授與動詞’라고 한다. 행동의 주체인 주어가 목적어를(직접목적어) 목적어에게(간접목적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God created the world. 세상은 죄를 범했다The world committed sins. 세상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The world disobeyed God.

하나님께서서는 창조를 후회하셨다God regretted his creation of the world.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God punished the world (with the Flood)...

이렇게 예수 이전의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3형식으로 잘 설명된다.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이다. 하나님이 주어일 때의 동사는, ‘create→regret→punish’이다. 목적어인 세상 쪽에서는 ‘created→regretted→punished’이다. 시작은 좋았지만 흐름이 점점 적대관계로 향하고 있다.

세상이 주어일 때 역사의 문장들이 증언하는 바, 세상은 목적어인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다. 하나님 나라와 인간 세상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간극Chasm은 3형식의 협곡이다.



3형식 문장과 4형식 문장이 다른 점은 오직 한 가지이다. 주어, 목적어 모두 그대로 있다. 다만 4형식에서는 ‘수여동사’가 사용된다. ‘주다Give’가 대표적인 동사이다. 주는 이Giver가 있으면 받는 이Taker가 생긴다. 주는 이의 것이 줌으로 받은 이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거룩이 더 이상 인간 세상의 현실이 아님을 아셨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세상을 사는 인간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간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죽는다고 해도 그들의 죄의 본성은 해결되지 않는다.

죄인이기에 법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만 죽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죄인은 심판 전이나 심판 후나 실존적으로 죄인일 뿐이다.

하여 하나님은 걱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법과 심판의 동사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수여하기로 계획하신 것이다. 이유인즉슨 직접목적어인 자신에게는 죄에 합당한 죽음의 벌을, 간접목적어인 세상에게는 용서 받은 죄인이 살게 될 새로운 현실 곧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을 흔들어서 ‘주다Give’라는 동사를 모두 털어내면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름이 없다. 경전이라 함은 당위와 도덕의 세계에 대한 제시와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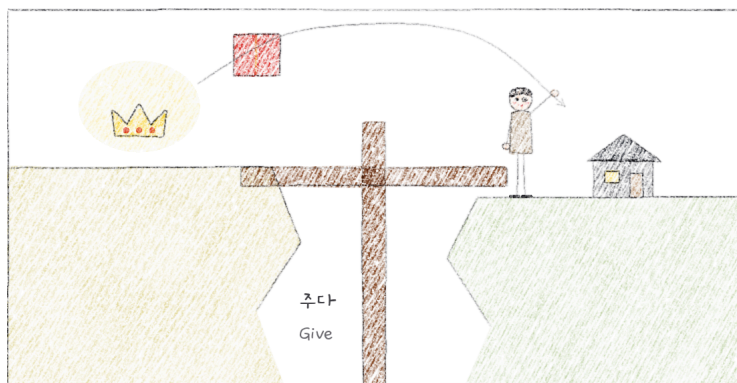
그 자체로도 모두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제시와 설명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이다.

성경은 도우시는 하나님Helping God의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그 아들 예수를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세상, 곧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성경에는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인간이 주어진 3형식 문장으로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공의로우시고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는 신神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세상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다 Give’라는 동사가 발견되지 않는 인생… 예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한  
인생이다. 예수를 받았음에도 아직 ‘주다’라는 동사의  
직접목적어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어 보지 못한 사람…  
아직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사랑은 4형식이다: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 지금 세상은 사랑의 4형식 문장을 완성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 천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 사랑은 성분차이이다

초콜릿은 식품 이상以上이다. 사랑을 전할 때 초콜릿은 전하는 이의 마음이 된다. 초콜릿은 원래 달콤한 것이 아니다. 씹어서 삼키지 못할 정도로 쓰다. 쓴 맛의 주인공은 원료인 카카오이다. 카카오가 없는 초콜릿은 가짜 초콜릿이다. 그렇다고 카카오 100% 초콜릿을 진짜 초콜릿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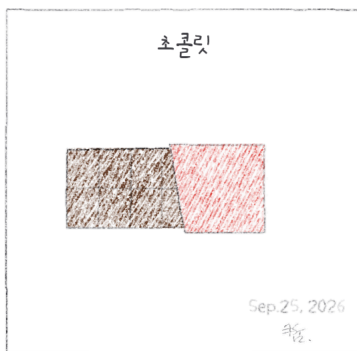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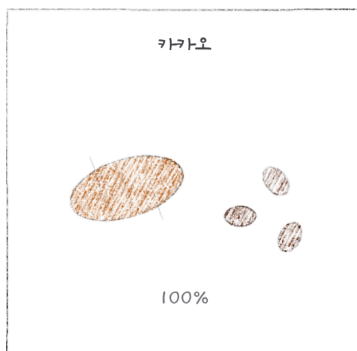
제품화된 초콜릿마다 성분표시가 있다. 카카오의 함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진품과 유사품으로 구분된다.

카카오콩에서 추출한 카카오 매스, 카카오 버터, 카카오 분말이 주원료가 된다. 주원료가 일정 함량치 이상以上이어야 초콜릿 제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주원료 함량을 낮추고 그 외의 재료를 넣어 만든 제품은 저급Inferior 혹은 준Quasi초콜릿으로 판매된다.

그러나 요즈음 의학적인 효능으로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는 다크 초콜릿의 경우 역시 주원료만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설탕과 향제가 들어가 있다.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원료라도 100% 사용하지는 못한다. 현실적으로 누구도 먹을 수 없다Inedible. 하여 초콜릿이란 주원료를 대체하는 유사 재료가 없고, 카카오를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가미加味재료가 일정량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 식품이라 할 수 있겠다.



인간은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

물론 방식方式에 차이가 있다: 보수적인 방식, 자유화된 방식, 종교적인 방식, 세속적인 방식, 동양적인 방식, 서구적인 방식, 기성세대들의 방식, 청년들의 방식, 결혼을 전제로 하는 방식,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

생각건대 사랑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다. 성분成分이다. 보수적이고, 종교적이고, 동양적이고, 기성세대적이고,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

그 외의 어떠한 방식의 조합들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본인들에게는 가치 있는 사랑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름도 사랑이요, 겉모양도 분명히 사랑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성분을 분석해 볼 때 가치는 밝혀지게 된다.

예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예수를 방식으로 보면 비위 상한 유대인이 되고 조소하고 있는 헬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예수를 앞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성분이 분석된다는 사실이다.

예수는 성육成肉하신 신神이다. 낮아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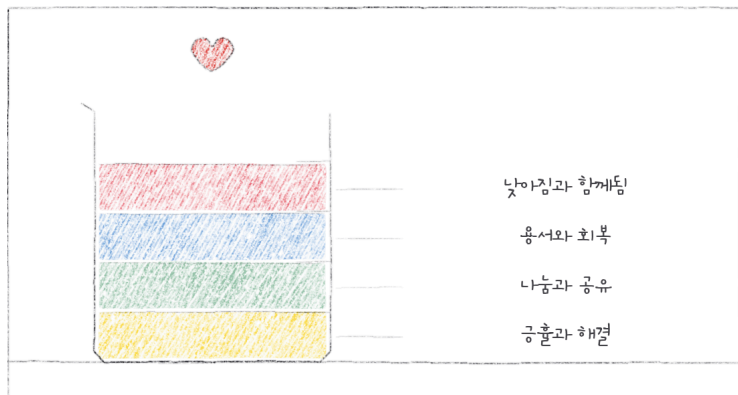
사람과 함께 되셨고 그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 인생을  
몸소 경험하셨다. ‘낮아짐과 함께됨’의 성분이다.

그는 또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들과 육신이 괴로운  
자들을 치료하셨다. 죄 짓고 실수한 자들은 용서하셨다.  
‘용서와 회복’의 성분이다.

예수께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다. ‘나눔과  
공유’의 성분이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 죄성으로 인해 자유치 못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값을 자신이 지불해 주셨다. 십자가  
죽음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그의 희생을 통해  
인류의 죄문제가 해결되었다. ‘궁휼과 해결’의 성분이다.

‘낮아짐과 함께됨’, ‘용서와 회복’, ‘나눔과 공유’, ‘궁휼과  
해결’이라는 성분이 바로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사랑의  
주원료이다. 방식이 어떻든 외형이 어떻든 사랑 안에  
주원료 대신 유사한 재료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저급低級 사랑이요, 해해하는 사랑이다. 가치 없는  
사랑이다. 열매 없는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을 사랑의 주원료라고 했을 때, 어떤 인간도 완전 100% 주원료로 자기 사랑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노력하고, 애쓰고, 목표할 뿐이다.

인간으로 하루를 사는 만큼 불순의 재료들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사랑하되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소유한 것을 사용할 것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주원료의 함량을 높이는 사랑을 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

하여 그 외의 인간이기에 소유한 부족함의 재료들은  
오히려 사랑 받는 이에게 그 역시 참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Doable는 희망과 용기로 작용하게 된다.

사랑은 성분차이이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두 여인의 사랑을 성분분석한 결과이다. 솔로몬은 지혜의  
실험실에서 둘 다 사랑이라는 전제 하에 성분을  
각각 분석했다. 결과는 참사랑과 거짓사랑이었다.  
참사랑은 친모親母의 것이었고 거짓사랑은 파괴의  
여신의 것이었다.

## 사랑은 신비로운 판정이다

둘째 딸 아이가 체조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팀별로 대항하는 대회였는데 그 수가 꽤 되었다. 2시간 조금 넘게 소요된 경기가 마무리되고 시상을 하였다. 딸이 속한 팀은 3등을 했다.

며칠 뒤에 딸 아이가 조그마한 동상 트로피를 받아 왔다. 대회 당일은 너무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담당코치가 보관했다가 그날에야 준 것이다.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트로피를 보여 주며 활짝 웃었다.

체조 학교에 등록을 하고, 데려다 주고, 다른 부모와 정보를 교환하고, 옷을 준비해 주고, 스케줄을 관리해 주고, 다시 데리고 오고… 가끔 도와 준 적은 있지만, 거의 엄마의 수고였다. 엄마의 도움과 격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회를 준비하고, 훈련 받는 과정의 순간 순간이 모두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었다. 딸 아이도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와 함께 상의한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상을 받아 왔을 때 딸은 아빠를 찾았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판정은 아빠의 몫이라고 생각된 모양이었다. 한 손으로는 건네주는 트로피를 받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판정’해 주었다: ‘네가 최고였다You were the best’.

9살이면 이미 세상을 알 만큼 안다. 하여 딸 아이가 수줍은 듯 말한다: ‘아빠, 이거는 3등이에요’. 아빠 역시 딸이 무엇을 왜 그렇게 말하는지 더 잘 안다. 그러나 아버지의 판정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전달되었다: ‘정말 정말 네가 최고였다’.



객관적인 판정은 당연히 ‘너는 3등이다’이다. 그러나 이상한 사실은 아빠의 판정은 ‘네가 최고이다’였고, 그날 ‘아빠의 딸’은 ‘아빠의 판정’으로 실제 최고가 되었다.

리전트 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다. 강의 중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조금 격앙된 어조로 질문을 했다: ‘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오로지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부족의 신神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일절의 자비나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의 대답은 이러했다: ‘지금은 질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질문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참고로 교수님의 이름은 제임스 패커이다.

사실 동료 학생의 질문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완전히 공평하고 공의로우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리도 타민족에게는 호전적이시고, 분노하시고, 심지어 살육까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스라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집에 있을 때는 나갈 궁리만 하고 집 밖에 있을 때는 집에 안 들어갈 머리만 쓰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급기야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유산을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몸쓸 놈을 아들로 둔 아버지가 있었다.

집을 나가 흥청망청 가진 것 하나 없는 걸인이 되어버린 아들의 아버지가 있었다.

사람과 짐승에게 천덕꾸러기가 된 무가치한 인생을  
아들로 둔 아버지가 있었다. 순전히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다시 돌아온 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웬만한 종들보다 못한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도 측은한 마음에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이 미리  
연습한 대로 그의 죄와 그가 더 이상 아들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옷과 가락지와 신발로 그가 용서 받았음과  
그가 이전보다 더욱 아들임을 선언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주리 트는 곡소리가 나아  
할 집안을 풍류와 춤추는 소리로 가득하게 채우는  
아버지가 있었다. 이스라엘에게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드디어 찾게 되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상한 판정을 내리는  
아버지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평생 악행을  
일삼던 사형수에게 말씀한다: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사형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던 탕자처럼 십자가의 예수께  
마음을 열었던 사형수에게도 이상한 판정이 내려졌다:  
‘너는 내 아들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객관성  
결여는 신약의 예수님의 온 인류의 아버지로서의 그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의 아들만을 위하는  
이상한 판정은 변함 없이 그대로이다. 다만 아들의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온 인류, 나와 우리만에게서 너와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었을 뿐이다.

사랑은 절대로 객관적 판정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그런 사랑은 무력無力한 입사랑, 글사랑, 머릿사랑이다. 객관과 율법과 당위에서 절대로 1등 할 수 없는 인간은 오직 아버지의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는 최고이다. 너는 의롭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는 판정으로 회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판정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신비神祕이다. 그래서 사랑이다. 단순히 사람의 통념이나 지혜나 지식, 논리와 객관적인 규범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다. 하여 사랑은 신비로운 판정이다.

## 사랑은 ‘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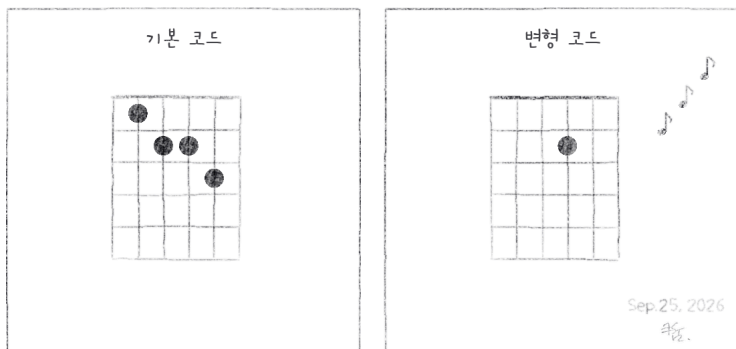
재즈 기타리스트들은 악보에 매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작곡가가 남겨 놓은 선율과 코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더 나은’ 소리를 찾고자 한다. 물론 악보에 매이지 않았다고 악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악보를 ‘더 잘’ 알아야 한다.

초보들은 우선적으로 기본 코드를 익혀야 한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각 코드 사이의 관계를 화성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악보에 있는 코드 그대로 곡을 연주하면 손도 빠근하게 아프고 소리도 그저 그렇다.

수준급 연주자라면 절대로 책에 그려진 기본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본 코드로는 그들 역시 손이 뻑뻑해지고 연주 소리가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한결 단순화되고 화음 역시 훨씬 세련된 변형된 코드를 사용한다.

초보들이 손에 마비가 올 정도로 기본 코드에 생명을 거는 이유는 모든 변형 코드의 시작이 바로 기본 코드이기 때문이다. 다른 음들은 모두 빼고 오직 한 손가락으로 운지運指를 하고 있는 극히 단순화된 변형 코드라고 해도 원래의 기본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소음이 아닌 화음이 될 수 있다.



기본 코드를 다 외우고 그 관계를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초보가 아니다. ‘Fake book’이라고 부르는 악보 하나를 가져다 놓고 자신만의 선율과 화음으로 원래의 곡을 한껏 꾸밀 수 Embellishment 있다. 자유를 쟁취한 것이다.

재즈는 즉흥연주Improvisation로 유명하다. 연주자의 자유가 즉흥연주를 가능하게 한다. 연주자의 자유의 중심에는 ‘더 나은’ 선율과 ‘더 세련된’ 화음을 찾고자 하는 연주자의 갈망이 역동하고 있다.

재즈 연주자에게는 콩쿠르 대회가 의미가 없다. 재즈는 ‘최고 한 명The best one’의 ‘일등 음악’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제멋대로 음악도 아니다. 재즈는 ‘더 음악’이다. ‘더’라는 단어는 부사로도 쓰이고 그 자체로 명사이기도 하다. 부사로 ‘그 위에 보태어, 어떤 상태보다 많이 혹은 정도가 심하게’의 뜻이다. 명사로 ‘그 이상’이다.

재즈는 지금 있는 것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기본으로 삼는다. 다만 거기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음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여 ‘한 명의 일등’, ‘한 종류의 최고’에 자신의 노력과 연주를 헌정하지 않는다. 오직 ‘더 나은 나의 음악’과 ‘내 음악의 공유자들’을 위해 음악을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흠 없는 인생 연주가였다. 율법은 그에게 기본 코드이자 연주의 내용과 목표였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는 손에 힘을 짝 쥐고 ‘지체 Parts’와 ‘은사Gift’라고 하는 악보를 연주한다. 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 준다. 하나같이 악보에서 벗어남 없는 그대로의 소리이다. 옳은 연주이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기본 코드를 잡느라고 굳어져가는 손에 통증을 느낀다. 그 누구보다 더 기본 코드나 화성학 이론에 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하고 아픈 손으로는 알고 있는 기본 코드를 깨끗하게 운지해내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육신으로는 완전치 못한 소리로 연주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롬7:25). 예수로 인하여 감사한다. 율법의 악보를 율법에 기록된 기본 코드대로 연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연주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밤낮으로 연습하면 기본 코드를 모두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것이 해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려 하는 마지막 순간에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연주법을 소개한다: ‘이제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알려 주겠다And I show you a still more excellent way’.

바울 사도는 율법의 악보를 새로운 운지법으로 연주하기 시작한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다. 그 기본대로 연주한다. 그러나 손이 저려오거나 아프지 않다. 소리가 둔탁해지고 음악이 건조해지지도 않는다. 손이 자유를 얻어 이리로 저리로 더 나은 화음을 찾아 비행한다. 연주되는 음악이 오히려 더 깊고 넓고 풍부하다. 예수에게 배운 사랑의 연주법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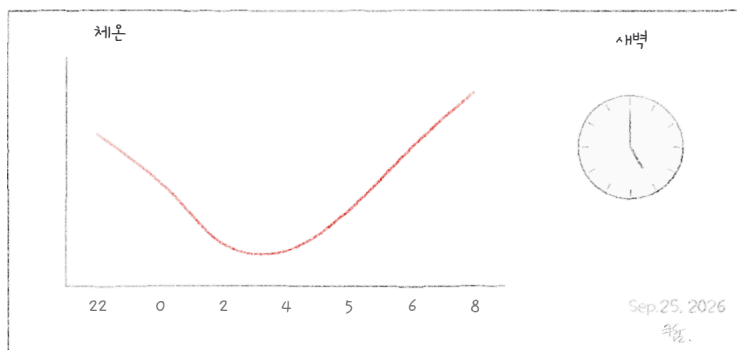
율법의 악보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바울의 연주로 완성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사랑의 연주법을 배우고 싶어한다. 율법의 기본 코드가 힘들고 지루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알고 포기치 않는다. 연습이 더해지고 시간이 흐른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나의 선율, 나의 리듬, 나의 화음으로 연주해내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과 그 뜻을 따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사랑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만 한다. 사랑으로 인생을 연주하는 사람은 기본을 최종목표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을 현실에서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보다 더’를 목표로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은 ‘더’이다. 사랑은 ‘덜’이 아니다. ‘더’는 ‘기본’의 어려움과 버거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 ‘사랑’은 ‘율법’의 무게와 압력을 기꺼이 견디고자 하는 이유를 공급해 준다.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없다. 사랑하되 진실되고 더욱 아름답게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는 것이다.

## 사랑은 새벽이다

새벽 5시는 몸의 온도와 심장의 박동수가 다시 상승하는 시간이다. 숙면을 위해 체온이 새벽 2시에서 4시를 기점으로 최저로 내려간다. 몸의 모든 기능들이 최소화된다. 영면永眠은 영원한 안식 곧 죽음이다. 생명을 놓지 않고 안식하기 위해서 인간은 매일 수면睡眠에 들어가는 것이다.



몇 시간 동안 휴식에 들어갔던 몸은 새벽을 통해 다시 생명을 얻는다. 잠자는 사람은 의식이 없다. 마치 시체와 같다. 성경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엡5:14)’고 한다. 자극에 반응이 없고, 의식이 상실되어 있다.

잠자는 자가 시체와 다른 점은 다시 각성覺醒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작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나사로의 신비이다. 무의식과 각성 사이… 바로 사람의 새벽이다. 육체의 부활은 아니지만 새벽마다 인간은 의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새벽은 지난 날 혹사 당했던 뇌가 쉬을 통해 깨끗이 회복된 시간이다.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의 뇌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뇌는 포르티시시모 Fortississimo로 새벽을 연주한다. 그 이후로는 디크레센도Decrescendo가 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시다. 시간과 장소에 무애無礙하신 신神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중요시하신다.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새롭게 왕성해지는 새벽,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신다. 대화하신다. 교제하신다.

사람이 잠에 들어가 아무런 생각도 반응도 못하는 밤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은 그를 위해 계획하고 일하신다. 신앙적으로 보면 밤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고 새벽은 여호와 이레로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시작해 놓으신 하루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의식이 돌아오고 뇌가 활발히 기능하는 ‘사람의 새벽’은 일을 마친 후 선물을 들고 집에 돌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녁’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자녀들의 오늘이다.

깨어난 의식과 정신으로 새벽에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정갈하고 명량한 마음과 민첩하고 똑똑한 정신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무런 요구 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은 사랑만은 요청한다. 사랑하되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베푸는 것이다. 헌신과 희생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상대를 향한 사랑이었다. 하여 사랑만은 주고 또 받으며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마음이 반드시 맑아야 한다. 그 정신이 깨어 활동해야 한다. 피로와 게으름과 타성들로 어질더분한 마음에는 사랑을 위한 여지餘地가 있을 수 없다. 멍하니 뉘 놓고 있는 정신으로는 집중과 인내를 요구하는 사랑을 수행해낼 재간이 없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관계도 새벽 사랑이었다. 새벽의 순정純情한 마음과 명석明皙한 정신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길 원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대로 준비해 놓으신 하루로 자신의 오늘 삼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인자人子로서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쇠퇴와 사망에 가까운 것인지 잘 알고 계셨다. 육체, 정신, 영혼 모두 우연처럼 찾아오는 인생의 필연 곧 수고와 괴로움, 질병과 고통, 갈등과 충돌로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인간의 하루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는 새벽부터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새벽부터 인간의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의 새벽을 하늘로 가득 채우고 나서야 결국 비워져 갈 땅의 하루를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협력하여 이미 선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하루를 잠시라도 살고서야 인자로서의 하루를 시작하였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은 사랑의 시간이다. 시체와 같은 처지에서 오히려 쉼을 얻고 다시 생명으로 회복된 기적 같은 시간이다. 몸과 마음, 영과 혼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와 같이 소중한고 아름다워지는 경이로운 시간이다. 정신이 깨어 살아있고 마음이 소담하게 차오르는 복의 근원 시간이다.

새벽에 사람은 참으로 사람다워진다. 새벽은 주고 싶은 사랑 조용히 품에 안겨 주고 받고 싶던 사랑 정겨이 구하는 사랑의 적시適時이다. 새벽에 사람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의 사람으로 충분히 준비된다. 사람에게 새벽은 사랑이다.

## 사랑은 인정이다

인간은 의식주衣食住만으로 살 수 없다. 좋은 집에서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생활이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도 얼마든지 심하게 불행할 수 있다. 반면  
의식주와 모든 소유의 강박에서 벗어나 무소유를 수도  
修道하는 두타頭陀라고 해도 인생이 주는 기쁨과  
의미에서 벗어난 심난甚難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유지향적으로 살든 존재지향적으로 살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바를 공급받아 소유해야지만  
온전히 살 수 있는 존재이다. 갓난아기에게 모유는  
소유적이지도 존재적이지도 않다. 다만 살기 위한  
절대필요일 뿐이다.

사람은 그 몸이 성장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 역시 성숙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육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생명이 붙어있다는 사실이 전제조건이다. 육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곧 생명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성숙해지는 정신 역시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정신이 성숙해지는데 필요한 것도 살기 위해 요청되는 인생절대필요인 것이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개체들이 아니다. 육체도 정신도 모두 나의 생명이다. 누군가 성인이 된 이후 이제부터는 육체를 위한 의식주를 무소유하겠다고 해서 소유인생에서 벗어난 존재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정신 역시 육체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필요와 육체의 성장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절대필요한 사람의 일부一部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육체에 필요한 영양분과 보호장치이다. ‘인정認定Acknowledgement’은 정신의 의식주이다.



인간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인정’이라는 의식주를 요구한다.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은 이것 없이 자신의 존재를 성장시킬 수 없고 성장장애가 생긴 그의 존재는 절대로 성숙에 이를 수 없다.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 인정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사람의 존재성은 ‘인정 받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성기를 구가謳歌하며 세상의 인기를 모두 얻는다 해도 존재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위태할 뿐이다.

인정은 입에 발린 소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인정은 아침이 아니다.

아침이나 값싼 칭찬은 그 근본이 ‘기만Deception’이다.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이다. 기만이 재료로 쓰인 것들은 ‘유사인정  
Pseudo-acknowledgement’이다. 어떤 영양분도 어떤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만은 근본적으로 인정함 없는 삶이다.  
사람들이 기만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육신의  
의식주가 제아무리 완벽히 확보된들 그들의 정신은 먹고  
입고 편히 쉴 곳이 없는 참담한 상태에 놓인 것이다.  
무엇을 성취해도, 무엇을 실수해도, 무엇을 소유해도,  
무엇을 무소유해도… 그들은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인정 없는 인생은 모두가 불쌍해지는 첩경이다.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부족한 존재인 인간의  
인정만은 요구하고 계신다(렘9:6).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인정함으로 하나님만큼 위대해진다(합2:14).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한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마10:32)’.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사람의 길을 영생까지 인도해 주신다(잠3:6).

예수도 죄인들의 인정함이 있을 때 구원자 예수가 된다. ‘예수 믿으라’하는 말은 ‘예수를 인정하라’는 의미이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 형태의 ‘유사구원자 Pseudo-deliverer’를 찾아 그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자기기만Self deception이다. 육체로는 어떻게든 잘 살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도 해결 되지 않는 존재의 죄책감과 불안함은 그 영혼을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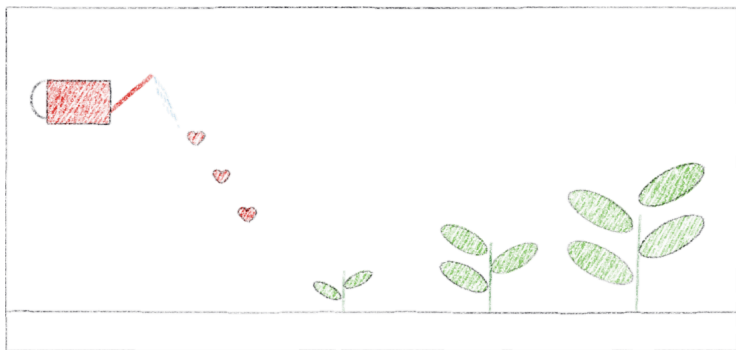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정認定’으로 심판의 대상인 죄인을 천국의 상속자인 자녀로 삼으셨다. 인간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함’으로 심판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화해和解하게 되었다.

‘인정’은 인간 정신의 의식주이다. 한 인간이 성숙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양분과 보호처를 제공해준다. 모든 인간은 인정을 공급받아야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

데일 카네기의 말이다: ‘워싱턴 대통령까지도 자기 자신을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 주기를 바랐다.

콜럼버스도 “해군 대제독”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를  
원했다… 저 위대한 셰익스피어조차도 자기 이름에  
관록을 더하기 위하여 돈을 들여 집안의 문장을  
수중에 넣었다’

모든 사람은 인정을 필요로 한다. 인정 받음으로  
그 마음과 영혼이 살아 기동起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누가 인정해 줄  
것인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이다: ‘사랑으로 사람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람만이 남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사랑은 ‘인정’이다. 인정 받아야만 사람 되어 갈 수 있는  
인생의 동료들에게 인정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은 상대를 인정해 줄 때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영혼의 의식주가 된다.

## 사랑은 닮음이다

사람은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 물 속  
고기처럼 살 수 없고, 하늘 속 새처럼 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렵용 장비가 아니라 새와  
물고기처럼 하늘과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훌륭한 장비와 첨단기기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스킨스쿠버는 바닷속 수영을 전문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다. 장비를 준비해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육상동물인 인간이 해양동물 물고기가  
되는 순간이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과 함께  
바닷속을 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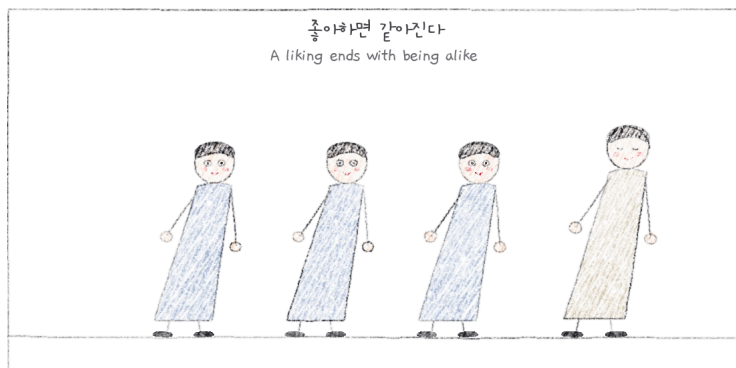
파일럿은 비행을 좋아해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공을 향해 날아 오른다. 날개 없는 인간이 하늘의 새가 되는 순간이다. 실제로 독수리나 그 외 새들이 바로 옆에서 날기도 한다.



좋아하면 같아진다 A liking ends with being alike.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은 스승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나머지 강연할 때 말을 더듬는 버릇까지 닮았다고 한다. 플라톤의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걸을 때 등을 구부정 굽히고 걸었다고 한다.



누군가에 진심의 기쁨을 품을 때 자신 안에 그와 비슷한 품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요즈음 기독교인들이 예수처럼 못 산다’ 하며 비난한다. 그러한 비난들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비난보다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진중하게 반성하였다면 비난의 울무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한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진리가 나의 부족함을 통해 증명되었다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피눈물로 갈망해야 한다: ‘나의 주님을 닮으리라’

예수같이 살려고 할수록 자책과 비난의 정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예수의 행동들 혹은 위인들의 행동들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방법이 되면 결과는 말했듯이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규칙과 판단의 인생정글’이다. 우리는 타잔이 아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날 가망은 거의 없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를 따르라Follow me’. 따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곁에 있으라는 의미이다. 시간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자는 뜻이다. ‘Following Jesus’이지 ‘Following what he does’가 아니다.

플라톤의 제자들Plato’s students이라 하면 플라톤을 따라 다니는Following Plato 사람들이다. 스승 곁에서 함께 배움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은 스승의 생각과 말 그의 성품과 몸짓까지 닮아 가는 것이다.

제자들이 스승이나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중의 결과이지 먼저 올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깨우쳐주는 스승이 있다. 그래서 스승을 존경하고 포기 없이 따르는 것이다.

요즈음 ‘예수의 제자’하면 거의 영적 슈퍼맨이나 007 정도 돼야 한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닥터 Q나 크립톤행성으로 자신들을 생각하는 듯 하다. 그 의도와 노력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방법은 아니다. 성경적 목표를 가지고 인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망스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행동하기 전에 예수의 행동에 충분히 감화되어야 한다. 출판된 책을 놓고 공부하기 전에 예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책에 필기해 보아야 한다. 제자됨의 우선은 언제나 예수 옆에 있도록 그를 따라 다니는 것이다.

예수를 수 년간 따라 다녀도 제자들 중에서 가롯 유다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 다니지도 않고 예수의 말과 행동을 가져다 공부 시켰다고 무뎠고 능력 충만한 바울 사도급 제자가 나오리라 기대할 순 없는 것이다. 예수같이 행동 Acting like Jesus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같이 되어가는 Becoming like Jesus 사람이 그의 제자임이 확실하다.

예수를 따라 다녀야 몸과 마음, 영과 혼에 그의 향기가 흠뻑 배인다.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예수를 따라 다니기 위해서는 그를 좋아해야 한다. 따라 다니기도 전에 무엇을 해야만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어지는 스승의 질문이 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치 않아도 신학대학원에서 4년을 버티며 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반평생을 목사로 신학교 교수로 살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와 그 긴 시간들을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옳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기를 쓰고 그렇게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처럼 되어가는 자이다.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만 그를 닮을 수 있다. 예수와 닮아갈 때 예수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제2의 품성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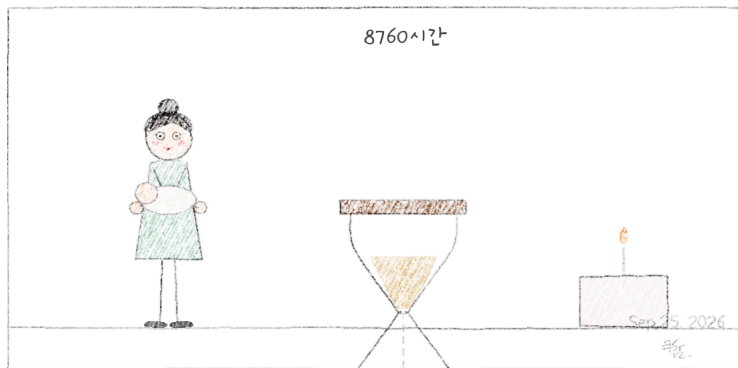
하여 요점은 예수를 사랑함이 예수의 제자됨이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스승되신 예수와 인생을 약속하는 관계가 된다는 의미이다. 예수의 제자는 실은 예수의 신부이다. 따르고, 배우고, 따라하며, 섬긴다. 둘이 닮아 간다. 모두 좋아서 사랑해서 가능한 신부의 제자행동이다.

‘행복한 결혼은 다름 아닌 긴 대화이다. 언제나 너무 짧게 느껴지기에 안타까운 긴 대화이다’, 프랑스 작가인 앙드레 모루아의 말이다. 사랑은 닮음이다. 닮음은 서로가 서로를 따를 때 진행된다. 서로 따르기 위해서는 서로를 좋아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런 사랑은 닮음이라는 긴 과정을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 준다.

## 사랑은 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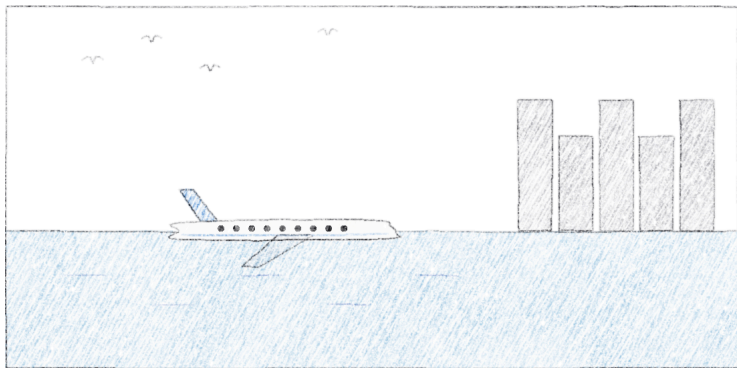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어머니를 생각한다. 핏덩이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기적을 어머니의 사랑 아닌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특별히 출산을 한 뒤 일 년 동안은 오로지 아기를 위해 삶을 쏟아야 한다.

태어나서 돌잔치 할 때까지 8760시간이다. 어떤 일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내내 할 경우 8년이 걸리는 시간량時間量이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 『위대한 성공자들Outliers』에서 ‘만시간 법칙’을 주장한다.



어떤 분야에서 보통 사람들의 범위를 뛰어 넘는 탁월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만시간을 그 일에 소비했다는 것이다. 만시간은 아웃라이어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숙련인이 되는데 필요한 절대시간량이다. 3시간씩 일주일 내내, 이렇게 10년을 공들이면 만시간이 채워진다.

글래드웰은 US Airways 기장 설렌버거를 언급한다. 이륙 후 새폐와 충돌한 여객기를 허드슨강에 성공적으로 불시착시켜 승객들을 살려낸 조종사이다. 미국은 이 사건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설렌버거를 영웅으로 추앙했다.



그러나 글래드웰은 설렌버거의 비행시간이 1만 9000시간이나 되는 사실에 주목한다. ‘허드슨강의 기적’은 ‘많은 양의 훈련시간’으로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신생아에서 돌잔치 주인공이 되기까지의 시간에 태아였을 때의 시간까지 더하면 1만하고도 6000시간이다. 아이도 아이지만 한 여자가 어머니로 훈련되는 기간이다. 만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통해서 한 여인은 ‘자식 사랑하는 일’에 숙련된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아가페가 완성되기까지는 그만큼의 양량이 필요한 것이다.

양量보다 질質이라고들 한다. 질이 형편없는 많음보다 질 좋은 소량少量이 낫다는 의미일 것이다. 모두 결과물을 놓고 하는 비교이다. 그러나 과정을 살펴 볼 때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든 둘이든 백이든 천이든 질 좋은 결과는 ‘다량多量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다. 과정에서의 양이 결과에서의 질이다.

물론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지만 현재의 상태가 기대치에 못 미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티핑포인트 곧 임계시점의 문제이지 결과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때가 되면 기대와 지각을 넘는 양질의 결과가 가시화된다.

진정한 문제 상황은 ‘양보다 질이다’를 과정에 적용시킬 때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것이다: ‘적은 양의 시간과 최소화 시킨 노력이 곧 양질성良質性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의 양이 될 수 있는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결과물의 양질을 보장하는 비결인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과정이다. 진실된 사랑의 결과는 서로 많이 사랑을 하는 사랑의 과정이어야 한다. 사랑은 그 본질상 과정과 결과가 항상 오버랩Overlap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 최상의 결과는 바로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현재’ 일 것이다. 지금 많이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의 과정이자 결과이다.

사랑에 있어서 질質의 양良은 곧 양量이다. 많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은 좋은 사랑이다. 사랑함에 자신의 정성과 시간, 물질과 재능, 노력과 배려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사랑은 고귀해 지는 것이다.

자유로워진 세상에 사랑의 종류는 더 많아지는데 사랑의 결과로서의 질이 이전 시대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의 양量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사랑의 스타일은 다양하게 많아졌는데 사랑을 오래하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랑의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사랑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며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은 그를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사랑하셨다. 사랑으로 모태에서 그의 장기와 형체를 조성하셨다(139편). 날 때부터 그를 맡아 주셨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2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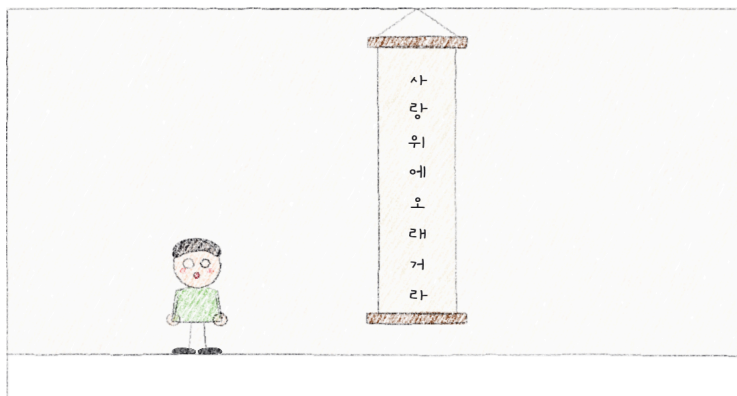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만시간이 아닌 만세전부터의 사랑이다(고전2:7). 만세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시점으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골1:27). 하나님과 함께 만세동안 경륜經綸하셨던 예수는 인류 모두를 살리는 구원자 예수가 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랑이다. 시간의 양으로는 만세전, 모태전부터이며 정도의 양으로는 그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사랑의 과정’을 거쳐 ‘십자가의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지금도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는 자는 이로써 행복한 인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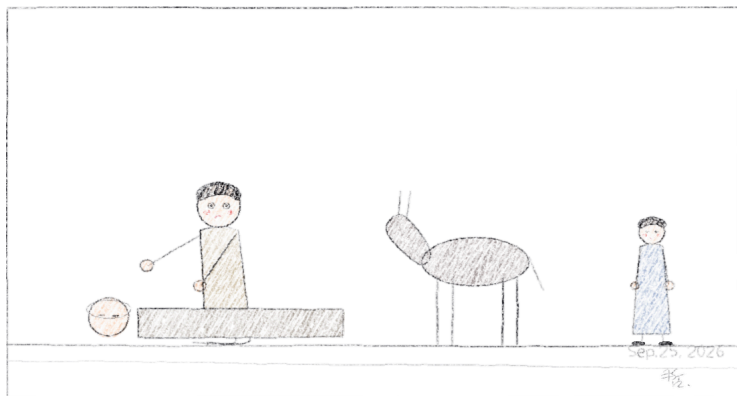
사랑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다량多量の 과정’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

어린 시절 살았던 조그만 아파트집에는 이런 족자가 걸려있었다: ‘사랑위에 오래거라’. 사랑은 오랜 시간이요 많은 노력이다. ‘양量으로 하는 사랑’을 터득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의 반열班列에 이미 오른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고귀한 인생이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사람을 살리는 셀렌버거의 기적을 일구어 낼 것이다.



## 사랑은 돌봄이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음에 이른 자를 발견하고 측은한 마음을 품었다. 우선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자신 역시 여행 중에 있던 터라 여관주인에게 돈을 건네며 뒷일을 부탁한다. 이때 그가 주인에게 한 말이 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Look after him’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법학자Expert in law에게 하신 말씀이다. 자기의自己義에 충만한 법학자가 예수를 테스트해 볼 심산으로 질문을 던진다: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생Eternal life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대답은 그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 ‘율법에는 무어라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공부하였느냐?’

법학자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암송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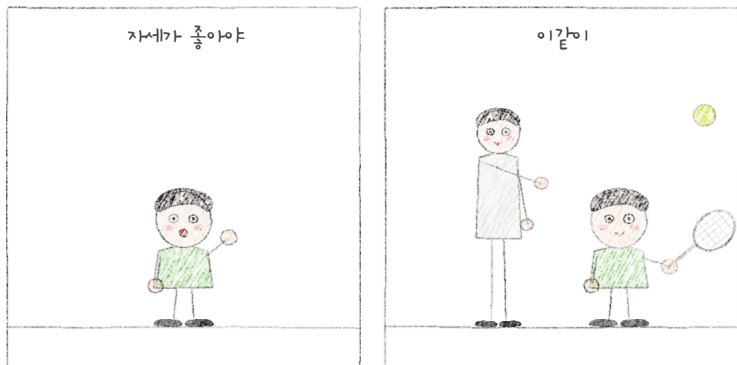
법학자는 ‘정답 자체’가 아니라 ‘정답자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답을 정답이라 해 준 예수께 자신의 옳음을 더욱 증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 예수께 드렸어야 할 질문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일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듣고 법학자는 다시 정답자가 되는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는 ‘정답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Go and do likewise’로  
마무리 하셨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한 꼬마가 아빠에게 질문한다.  
‘테니스를 잘 치려면 무얼 해야 하나요?’ ‘우선 자세를  
잘 배워야 해’, 아빠가 답한다. 아이가 테니스에 소질이  
있어서 테니스 학교로 보냈다.

그곳에서 아이가 담당코치에게 묻는다: ‘테니스를  
잘 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코치가 답하기 전에  
자기가 말한다: ‘자세가 좋아야 돼요!’. 코치는 ‘좋은  
자세’를 ‘이같이’ 하면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코치에게도 ‘자세가 좋아야 테니스를 잘 친다’는  
정답이지만 ‘이같이’에 관심 없는 학생은 퇴학감이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는 ‘무엇이 사랑인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용 질문이다. 실천과 그 방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정의Definition에 생명을 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생케 하는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방법으로 실천하셨다.

법학자 계열의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저 알고 있는 이야기의 재방송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마스터 클래스Master class이다. 마스터이신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입을 빌려 ‘사랑은 이같이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다: ‘돌보아 준다Look after’.

‘돌보다’는 말 그대로 몸을 돌려서 그 대상을 봐 주는 것이다. 특별히 그 대상의 ‘앞’으로 상징되는 ‘외모와 지위, 소유와 겉치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를 봐주는 것이다. ‘아픔과 괴로움, 슬픔과 고통’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속’을 알아 보는 것이다.

인생살이 보려고 하지 않으면 분명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두 눈으로 본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던 ‘강도 만난 이후의 조치들’이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비하면 그 ‘앞’과 ‘겉’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사마리아인은 오로지 ‘뒤’와 ‘속’으로만 살 수 있었던 사람이다. 흑역 유대인 중 비열한 자들이 혈통과 신분이 ‘개’와 같다고 해도 생활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해야만 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이야기에 등장한 이유는 하나이다: ‘돌보는 사랑Love of looking after’. 사마리아인을 통해 예수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서로 ‘앞’과 ‘겉’만 보고 지나쳤던 ‘제사장-강도 만난 사람’, ‘레위인-강도 만난 사람’ 사이에는 ‘알고 있는 옳은 것’을 ‘내가 해야 할 행동’으로 리에종Liaison 시켜주는 ‘사랑’이 없다.

서로 간에 하던 일, 처한 상황을 그대로  
평행유지平行維持하는 현상유지Status quo의  
행동만이 가능할 뿐이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형形’을 ‘본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겼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동정  
同情의 심정이 물밀듯 일어나야 가능한 사랑이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다른 두 사람이지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하는  
감정으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돌보게 되는 사랑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법학자와  
울고 그름을 토론하려 한 것이 아니셨다. 자기의自己義  
라는 강도에 사랑하는 삶을 갈취당한 법학자를 돌아  
보시고 그 마음이 가엾음으로 동動하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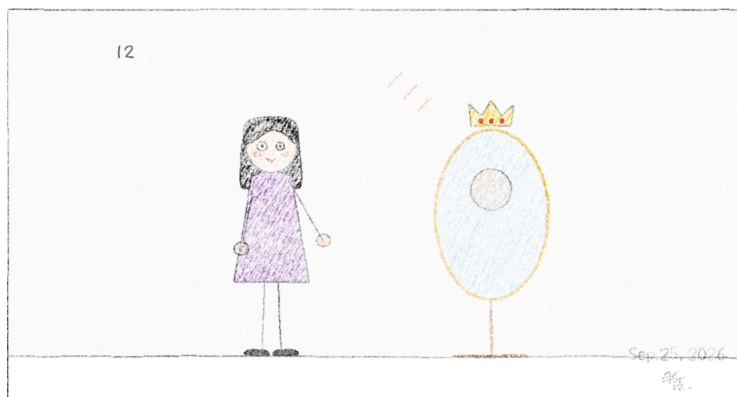
언제나 따지고 빼돌게 행동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제대로  
보고 있지만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치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사랑없음을 돌보아 주셨다.

사랑은 돌봄이다. 필요에 처한 사람을 돌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뒤를 기꺼이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법학자의 질문은 더욱 거세지고 정답자는 더욱 늘어가지만 사마리아인의 돌보는 사랑은 참으로 희귀한 오늘을 살고 있다. 이런 중에 예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 사랑은 가꿈이다

‘열두 달간의 뷰티 트리트먼트’. 왕을 만나기 일 년 전 에스더는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성경은 에스더가 자신의 뷰티 코디네이터가 되어준 왕의 내시 헤개(에2:9)가 일러준 그대로 자신을 단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에2:15).

왕은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를 미스 페르시아 진으로 뽑았다. 왕관을 씌우고 왕후로 삼았다(에2:17). 에스더를 한 번이라도 직접 본 사람 모두가 왕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에2:15).



신장이 222cm인 하승진 선수는 신을 신지 않아도 이미 남들 정수리가 훤히 보인다. 그러나 키 크다고 신을 벗고 다니지는 않는다. 그 큰 키로 더 높이 더 안전하게 점프하기 위해서 최고의 농구화를 찾게 되는 것이다.

절세미인은 꾸미지 않아도 못여성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렇다고 꾸미지 않는 것이 아니다. 확보된 미를 기초로 몸과 그 태, 분위기와 됴됨이까지 ‘더욱 조화롭게’ 가꾸게 되는 것이다.

에스더는 그렇게 자신을 가꾸었다. 그렇게 자신을 가꾸고 있다. 또한 자신을 가꾸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된 이상 앞으로도 더욱 그리할 여인이 되었다.

아하수에로왕은 ‘태생의 아름다움에 가꿔지는 미美까지  
갖춘 여인’ 에스더에게 다른 처녀들과는 다른 매력 곧  
‘더한 매력’을 느꼈다 Now the king was attracted to  
Esther more than to any of the other women(에2:17).

이 마음이 계기가 되어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은 히브리인을 향한  
하만의 증오의 성난 불길보다 ‘더욱 강렬’한 것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무덤 속까지 들어갔던 히브리민족을  
생명으로 부활시킬 만한 힘으로까지 자라났다.

진실된 사랑은 절대로 외모나 외적조건이 아니다. 진실된  
사랑은 내면이며 내적상태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내면과 그 상태를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놓치면 안 된다: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가꾸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가꾸다’는 사람이나 식물을 목적으로 취한다. ‘가꾸는  
사람’의 의도와 수고, 손길과 하루품으로 그 대상은  
‘가꾸어지는’ 것이다. ‘가꾸다’는 영어로 ‘Dress’이다.

옷을 디자인해서 입혀주고, 장식으로 꾸며주고, 머리를 만져주고, 발을 갈아 비료를 주고, 가지를 쳐 주고, 정원을 가꾸어 주고, 심지어 상처까지 치료해 주는 것이 ‘Dress’이다. ‘가꾸다Dress’의 핵심은 ‘더 낫게 만들Make it better’이다.

참사랑은 ‘가꾸다Dress’이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최초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고 죄로 죽을 인간에게 의의 옷을 입혀 생명케 하셨다. 죄인으로 돌아온 아들을 목욕시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락지와 장식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접붙여진 가지를 가위로 전정剪定해 주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었다. 심령이 상한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셔서 세상의 치료자로 세워 주셨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이상한 방법으로 느끼게 하고 희한한 형태로 놀라게 하는 분이 아니다.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정원사Vine-dresser 하나님이다.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천국의 사람들답게 자라나도록, 열매 맺도록 가꾸어 주시는 사랑의 영이시다.



가꾸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또한 가꾸는 법을 지도해 Coordinating 주신다. 우리의 가꿔짐이라는 과정을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 곧 왕이신 하나님 존전에 다시 서게 되는 그때까지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서는 그의 지도 그대로 우리가 우리를 가꾸도록 자유케 하신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는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자유’이다. 여기서 살펴볼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자유’의 실제實際와 둘째 ‘자신을 가꾼다’의 의미이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는 자신들이 싸우고 애써서 획득한 자유가 아니다. ‘주어진 자유 Given freedom’이다.

은혜이다. 사랑의 빛을 진 것이다. 내 손에 있는 자유이고 내가 사용할 자유이지만 나만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주신 분Giver’의 ‘주는 자유Giving freedom’가 상당한 침해 侵害를 받게 된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From’과 ‘To’로 이해되어야만 되는 자유이다. 죄와 사망의 집요한 빛독촉 ‘으로부터From’ 완전히 면탈免脫된 자유이다. 그래서 의와 생명‘으로To’ 임직任職된 자유이다. 일없이 무위 無爲하고 의무 없이 무위無位한 성도의 자유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다.

둘째로 자유로써 ‘자신을 가꾼다’는 의미는 ‘자신을 사랑의 사람되게 한다’는 뜻이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자유에 무한한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다. 그가 말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 그 자유로 생각만 해도 진저리 나는 이전 죄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하는데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갈5:13)’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을 그대로 반영 反映해 주는 거울을 닦하며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율법에 비추었을 때 족하게 아름다운 인간은 없되 하나도 없다(롬3:10). 그러나 사랑함으로 자신을 가꾸가는 사랑의 사람이 율법의 거울 앞에 설 때에는 거울은 ‘아름답고도 거룩하신(시96:9) 예수’를 반영한다. 이때 율법은 완성된다(롬13:10).

사랑은 가꿈이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 또한 가꿀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께서는 사랑함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그의 신부에게 결국 이렇게 외치실 것이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따고 고운가!(아7:6)’. 그 후 왕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거룩한 상상에 맡기겠다. 참고로 한낱 사람인 왕 아하수에로도 ‘에스더 2장 18절’<sup>1</sup>만큼은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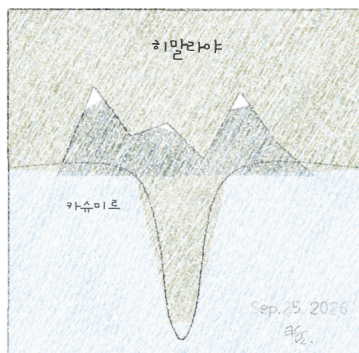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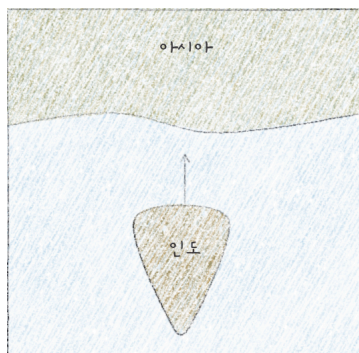
1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표준새번역).

## 사랑은 현재이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카슈미르양털의 본고장, 인도 카슈미르는 사랑이 없는 곳이다. 카슈미르의 남자들은 납치로 행방불명되었고 남아 있는 아낙들은 반과부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이고 파키스탄은 무슬림인데 그 사이에서 전쟁과 테러로 피폐해가는 땅이다.

대륙이동설에 따르면 인도는 아시아가 아니었다. 지각의 대변동이 있으면서 인도가 이전의 대륙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시아 대륙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때의 두 땅덩이들 간의 충돌로 융기된 것이 히말라야산맥이다.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이지만 거대한 산맥의 경계로 아시아의 문화와는 사뭇 다른 인도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카슈미르는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린다. 지상천국과도 같은 이 아름답고 비옥한 땅에서 사람들은 죽이고 죽임당하는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카슈미르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슬림이다. 그런데 British India가 India로 독립할 당시 카슈미르 왕이 힌두교인이었다. 해서 파키스탄이 아닌 인도로 병합된 것이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평화롭고 인정 넘치는 삶을 영위하던 카슈미르는 인도군의 진압과 반군의 테러가 악순환되는 싸움과 반목의 지역이 되었다. 현재 카슈미르는 증오와 공격이 일상이 되어 버린 사랑 없는 비참한 땅이다.

처절한 가난과 죽음이 대물림되어 내려온 이곳의  
주민들은 인도 정부도 반군 지도자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 정치인들의 목적은 카슈미르의 현재가 아니다.  
오로지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조치할 내일일 뿐이다.

카슈미르의 다수를 차지하는 독실한 무슬림들은 그들의  
신 알라를 예배하며 살고 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알라의 뜻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현재에 대한 소망이 그 싹도 자라지 못하는 말라  
갈라져버린 땅이다.

한 무슬림 상점주인의 말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하루에서 하루로 향해 걸어가는... 그러나 나는 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은 점점 더 힘겹고  
불행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힌두교인이 소수민족인 지역은  
오직 카슈미르이다. 이곳 힌두교인들은 힌두교의 큰  
절기를 여느 다른 지역에서처럼 축제로 즐기지 못한다.  
집 안에 마련한 제단 앞에 가족들이 모여 수많은 신들 중  
하나인 풍요의 여신 라크슈미에게 기도한다.

이들의 기도에는 현재가 없다. 다가올 현재인 내일에 대한 진실된 기원도 없다. 다만 손에 들고 있는 기도문을 읽어나갈 뿐이다. 정치인들에게서는 정치적 책략策略 만을, 알라신에게서는 복종과 운명만을, 힌두교의 많은 신들에게서는 제사와 기도만을 기대할 뿐이다. 카슈미르에는 사랑이 없다. 사랑을 기대할 곳이 없다.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Religion is the opiate of the masses’라고 했다. 그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의 기초 위에서 발전된 사상이다. 유물론은 모든 만물의 기본을 물질Material로 보는 철학이다. 정신과 마음의 작용 역시 물질계의 산물이다. 물질세계는 현재의 보이는 세계이다.

칼 마르크스에게 ‘종교’는 현재세계와 인간현실의 모순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민중들을 현실의 문제들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경향성을 지녔기 때문에 ‘아편’이다. 현재 직면한 실제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피안彼岸의 세계로 도주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증명서와 여행스케줄을 만들어 주는 종교를 아편에 비한 것이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로서의 기독교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영혼 구원’은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진리로서의 기독교의 핵심이다.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인간 구원’이 구원 받은 기독교인들이 현실에서 이루며 살아야 할 ‘현생 구제’로 표현되지 못한 면을 부인할 수 없다. 현실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저 ‘Pie in the sky bye and bye’<sup>2</sup>를 건네주기도 했다.

진리로서의 기독교는 예수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노동과 이동이 종교법으로 금지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걷고 계셨다. 제자들도 유대교인들이었고 모세의 법을 준수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 모르긴 해도 엄청나게 배가 고프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

2 ‘Pie in the sky bye and bye’는 1900년대 초반 구세군 찬송가 ‘In the Sweet Bye and Bye’를 개사하여 풍자한 조 힐 Joe Hill의 노래에 나오는 대목이다. 말로는 행복이지만 이루어지기 거의 불가능한 소망을 의미한다.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농칠 리가 없다. 율법이 금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인 그들이 예수께 충동한다: ‘당신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라. 안식일에 율법이 금한 행동이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마12:2)’

예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사례를 드시며 말씀한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했던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심지어 다윗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성별된 빵Consecrated bread을 먹었다(마12:3)’

당시 안식일이라 해도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다.

이 경우 제사장들의 노동은 분명히 반율법적 행동이지만 결국은 무죄였다(마12:5). 예수께서는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자신이라 천명하셨다(마12:6). 이제 유일무이한 절대권위로 말씀하는 진리가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자비이다I desire mercy, not sacrifice(마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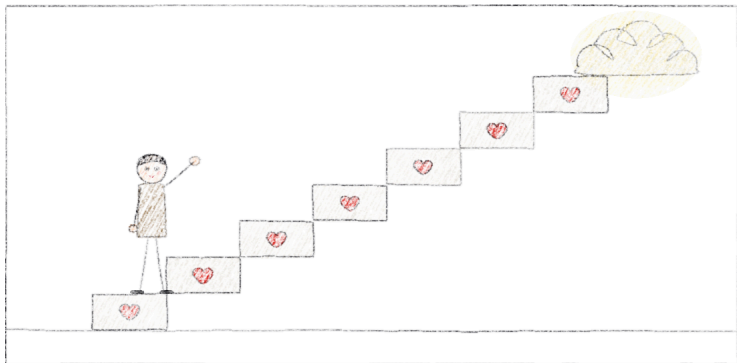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안식일을 사사로이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함이다. 그런 율법이 율법을 제정하여 수여하신 분의 뜻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규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시다. 동시에 인간의 연약한 육체와 인생의 곤함과 필요를 몸소 체험하신 하나님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은 지상에서의 지금 이 순간처럼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직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우리의 지금은 아니다.

하여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현재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다: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약자, 굶주린 자와 눌린 자의 현재를 보살피  
채워주어야 한다’

인생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재는 언제나 사랑스럽지만은 않다. 가난, 질병, 갈등,  
혼란, 가해와 반목의 카슈미르이다.

주위 사람들의 이러한 현재까지 사랑해줄 정도로  
사랑충만한 사람을 예수께서 부르고 계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13:35)’



이들은 민중의 아편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다. 모든  
인간의 현재는 사랑의 계단을 통해서만 천국의 미래에  
이를 수 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현재를 위한 것이다.  
사랑은 현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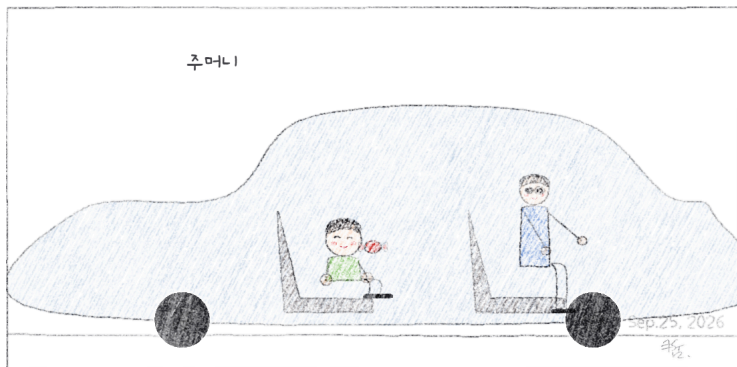
## 사랑은 지식이다

몇 달만 있으면 세 살이 되는 아들에게 세상은 누구  
말대로 호기심 천국이다. 하고 싶은 것들 투성이다.  
그러나 하는 짓은 제 누나들보다 꼭 일 년씩 늦는다.  
말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셈하는 것도 모두 더디다.

내심 걱정 좀 했는데 요사이 들어 말도 곧잘 하고,  
노래도 흥얼거리고, 물건도 셀 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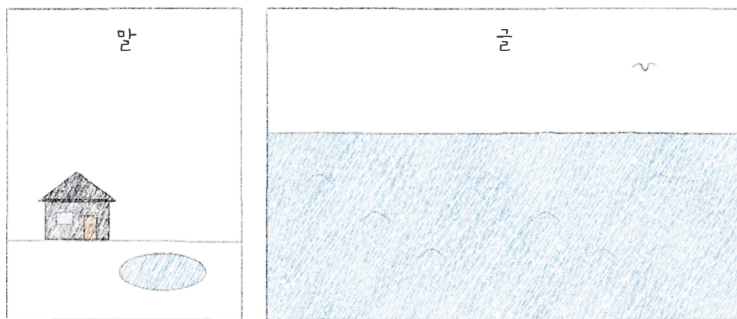
이런 아들 녀석이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한번은  
차를 타고 단 둘이 서점에 간 적이 있다. 차를 타자마자  
캔디를 달라고 해서 하나 주었다. 여느 때 같으면  
이미 다 먹고 또 달라고 할 시간인데 입이 오물거리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물었다: ‘린이야, 캔디 벌써 다 먹었어?’ 질문은 했지만 말을 잘 못하는 아들에게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다. 그런데 아들이 입을 열었다: ‘음… 주머… 주머니… 있쑤’. 주머니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던 줄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 다른 가족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은 신기하게 언어를 배워나간다. 5살 정도 되면 웬만한 의사소통은 문제되지 않는다. 한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시 언어를 공부하며 애먹는 시절을 겪어야만 한다. ‘말’은 배웠지만 ‘글’은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만 잘하면 되지’하며 글공부를 시키지 않는 부모는 없다. 글로 쓰여진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 아이의 말은 성장이 멈춰버린다. 한계가 있다. 사람의 이성Reason은 글언어라는 그릇의 용량만큼 담겨진다. 말언어와 글언어의 차이는 집 앞 연못과 태평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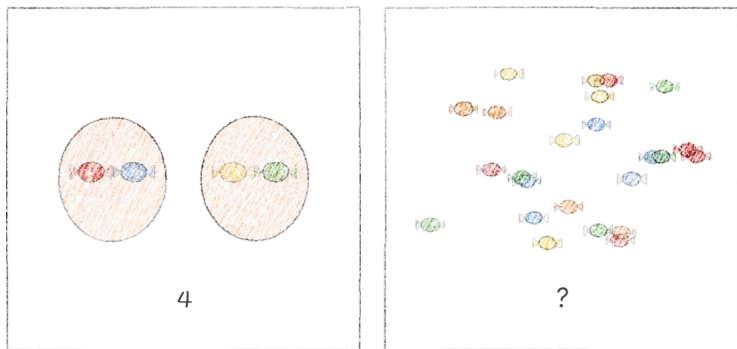
인류역사 초기의 음악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기본이 5음계이다. 지금은 7음계로 발전했지만 고대음악은 동서를 무론하고 주로가 다섯 음계였다. 그런데 5음계의 고대음악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도 인간은 노래했다. 아들이 가끔씩 제 흥에 겨워 만들어내는 이상한 멜로디도 나름 노래이다.

화성학이나 스케일 같은 음악적 글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사람은 노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다.

기분에 흥얼거리는 노래, 그것이 좋게 들려서 따라해  
보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와 같은 음악적 말언어는 ‘시작’  
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위대한 음악의 갤럭시A galaxy of great music로 한평생  
여행하며 그 황홀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생득生得  
에서 지식Knowledge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들 녀석에게 수數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캔디를  
몇 개를 손에 쥐고 있는지 따져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능력은 현재 4개까지만 정확히  
발휘된다. 양손에 두 개씩 쥐고 있는 그 느낌이 사탕  
4개와 일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탕보다 훨씬 더 좋은 많은 것들을 노력하여  
얻고 또 나누어 주는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아들은  
앞으로 수학을 공부해야만 할 것이다. 수학공부를 통해  
사물을 보이는 대로 세어나가는 수준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사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태어남 자체가 인간에게는 경이로운 기적이다. 인간은  
축복의 씨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나 태생으로 소유하게  
된 축복의 씨들은 지식의 밭에 심기위 정성스레  
가꾸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생산하는 과실수가 된다.

예수는 말씀The Word이시다. 예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말씀 곧 복음은 현재 글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말씀이신 예수는 성령으로  
믿어진다. 믿음을 입으로 ‘말하면’ 죄인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롬10:10).

그러나 신자信者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딤후3:16) 하는 예수의 말씀은 배워야 하는  
글언어The written words이다. 예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믿음의 마음의 고백인 말언어로 주어진다.

반면 예수의 사람다운 그 만큼의 뉘뉘이의 정도까지  
성숙하는 것은(엡4:13)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며 겪는 문제와 어려움들의 대부분은 읽고  
공부해야 할 성경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읽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권위로  
말씀하시는 바를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런 신앙은 한계가 있다.

자연스럽게 익힌 신앙의 말언어로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위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하는 신앙의 지성을 소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마다 이는 감정의 표현으로 혹은 다른 이들의 깊은  
찬양의 소리를 듣고 노래를 흥얼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 이 역시 견고한 찬양의 신학의 부재로 늘상 변하는  
감정과 타인과 환경에 휘둘리는 영적靈的 영합게임Zero-  
sum game의 인생이 그 한계일 것이다.

진퇴를 파악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뱀의 지혜가 없어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심령만으로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살이  
쏟아지는 선택의 폭우 속에서 어디에도 날아갈 수 없는  
등지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리히 프롬이 ‘사랑은 기술 Loving is the art이다’ 했다.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시간과 정성을 올인  
All-in해야지만 후에 얻어지는 것이다. 가치 있는 모든  
것들 중 단연 최고는 사랑이다. 이렇게 위대한 사랑은 『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다.

보기 흉한 싸움박질이 아닌 자기극복과 예절의 무예를  
영어로 ‘Martial Arts’라고 한다. 사지 온전한 사람이면  
주먹질도 할 수 있고, 발차기도 할 수 있고, 자기방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다. 이런 초보자들이  
무예를 배울 때 이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여 훈련한다.

오늘 관장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눈을 가리고 고수들과 5대 1로 겨루기하면서 공기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중을 두 번 돌며 상대를 차례로 발차기 해서 쓰러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완전 기초 기술부터 훈련해야 한다. 오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 기술이 아이들 블록쌓기처럼 점차 고수화 高手化 되는 것이다. 사랑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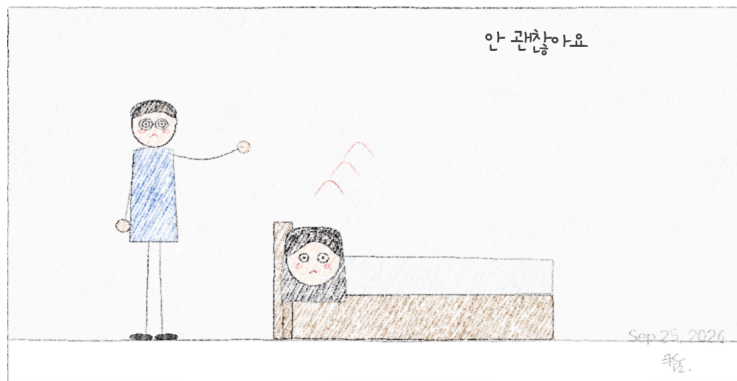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런 간절한 바람을 전한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Knowledge과 모든 통찰력The depth of insight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가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사랑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빌1:9-10)’

사랑만큼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순수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나의 직관과 나의 감정과 나의 취향과 기준이라는 한계를 넘어 너와 나를 충만하게 하는 사랑으로 차오르기 위해서는 절대로 지식은 필요하다. 지식없는 사랑은 정체停滯이다. 사랑은 지식이다.

## 사랑은 ‘안 괜찮다’이다

매년 한두 번씩 찾아오는 독감은 사람을 앓아눕게 만든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괴로움을 준다. 밤이면 고열로 온 몸이 붉게 달아오른다. 눈에 초점이 없고 기진하여 뜨거운 숨만 겨우 내쉰다.

끔끔대며 앓는 아이에게 묻는다: ‘괜찮아?’. 아이의 답은 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랜만에 놀러 온 친척들에게는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말한다. 학교에서 ‘How are you?’하며 인사하는 친구들에게는 으레 ‘Fine’으로 답한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안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할 것이다.



혹여 이런저런 이유에서 ‘괜찮아요. 참을 만해요’라는 답을 원하는 부모들도 있다. 그러나 자식다운 답은 ‘안 괜찮다’이다. 부모에게 자식은 그 자체로 절대로 ‘괜찮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괜찮다’는 ‘관계하지 아니하다’의 줄임말이다. 중국어로도 ‘괜찮다’는 ‘메이관시沒關係’라 한다. 자신과 그 대상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나에게 책임이 없고 상대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 사람, 그 대상, 그 사건에 대해서 ‘괜찮다’.

아픈 자식은 자식이기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괜찮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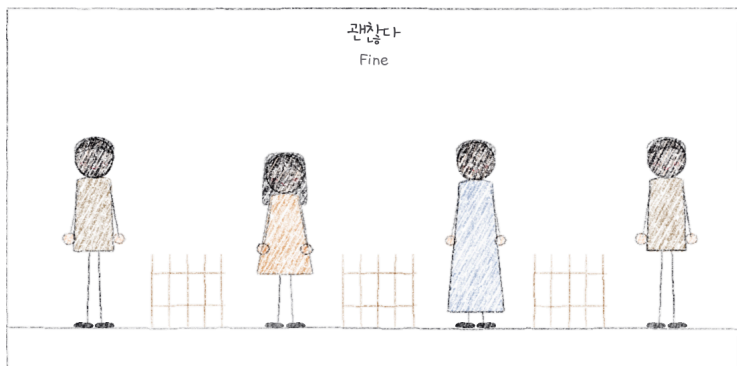
혹여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 내리는 눈발 속에서>에서 서정주 시인이 괜찮지 않음으로 읊었던 ‘괜찬타... 괜찬타... 괜찬타... 괜찬타...’와 다름이 없다. 실은 마음 구석 어느 한 곳도 괜찮지 않은 것이다.

사랑은 관계이다. 수많은 어떤 이들 중에서 너와 내가 바로 그 누군가로 관계되는 것이다. 인생살이, 빌 위더스 Bill Withers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기댈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다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괜찮지 않은不沒關係’ 서로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도 ‘전혀 괜찮은 Absolutely fine’ 관계가 바로 사랑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괜찮다Fine’.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괜찮게 사는 법How to live by having nothing to do with’을 배우며 살아왔다. 나와 관계 없는 것을 찾아내고 울타리 밖으로 내어 놓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소중한 사람이라도 그와 관계하는 방향을 될 수 있는 대로 서로의 등 Back쪽으로 돌리려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울타리 밖’이어서 ‘괜찮다’. 우리는 서로를 ‘등 지고’ 있어서 ‘괜찮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 역시 ‘울타리 밖’에 내어놓인 바 된 인생의 이방인이 되어 있음을 섬뜩이 깨닫게 된다. 삶의 한 시점에 자신이 대면對面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얼굴들이 아니라 상대의 등뿐인 현실에 공포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괜찮지 않은’ 신神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한 관계 Eternal relation’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관계하다’의 조건은 언제나 둘이다. 그러나 ‘관계하다’는 본질적으로 주어의 의지에 달렸다. 바로 그 한 사람이 ‘관계의 가능성이며 약속’이다. ‘관계하기로 결심’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관계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간에게 선물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배운 인생의 고귀한 기술은 다름 아닌 ‘관계하는 삶’이었다. 설교하는 법, 타락한 정치인들을 깨우치는 법, 대중들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는 법이 아니었다. 고멜이라 해도 ‘괜찮다’ 하지 않고 그와 ‘관계하며’ 사는 ‘안 괜찮게 사는 법’을 훈련 받았던 것이다.

인간 호세아는 고멜과 상종치 않을 때 ‘괜찮을 Fine’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주의 종 호세아는 고멜과 ‘상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Good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그가 나와 ‘관계하시기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호세아를 통해 자신을 가감 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고멜보다 딱히 나은 것이 없는 우리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루連累시켜서Involve 자신과 ‘관계시키셨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식들을 ‘관계하셔서’ 자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자신의 결심이요 의지요 기쁨이요 만족이다. 사람들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는데 능하다. 그 능력의 결과로 그들은 ‘관계하는 사랑’이 아닌 ‘끊는 사랑’으로 ‘괜찮다’ 생각하며 살고 있다.

상관 없음으로 ‘괜찮다’ 하는 인생이기에 인간은 무엇으로도 어느 때라도 외롭고 고독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홀로 비참함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인간과 ‘관계하셨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끊은 관계의 자리에 두텁게 맺어져 있던 미움과 죄악의 관계의 사슬을 예수께서 끊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 곧 사랑으로 다시 관계할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이제 예수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불변할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이시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여 잘못에 이르러 아파할 때 하나님은 전혀 ‘괜찮지 않은 분’이시다.

자녀된 우리가 습관처럼 ‘괜찮아요’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안 괜찮다’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에 사랑으로 ‘관계하신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자식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이 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다(렘31:20)'

사랑은 너와 나의 관계이다. 관계함이요 관계있음이다.  
사랑은 관계하려 할 때 사용되는 고귀한 마음이다.  
사랑은 관계있음에 줄 수 있는 자기 자신, 그 모든 것이다.

참된 사랑은 관계하지 않음으로 해결과 편리와 이득을 얻는 '괜찮게 사는 인생법'에 관심치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에 관계된 모든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더욱 '관계시키'는 '안 괜찮게 사는 인생'에 마음이 결정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 사랑은 패션의 완성이다

아르마니 재킷은 남성의 미美를 여성스런 방식으로 드러나게 해 준다. 한껏 붙어 있었던 어깨 패드를 제하고 드러나는 어깨선으로 사람의 몸이 패션이 된다. 봉제 시 필요한 심지의 수를 줄이고 접착심지와 그만의 봉제법으로 가벼움의 미를 실연實演한다. 마치 여성의 옷처럼 몸으로 가볍게 붙어 떨어진다.

패션 디자이너인 조르조 아르마니Giorgio Armani는 사람의 몸을 잘 알고 있다. 디자이너가 되기 전 그의 전공은 의학이었다. 세간에 알려진 바대로 그의 패션철학은 ‘몸을 위한 패션’이다. 사람이 옷에 재단되듯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의 몸을 위한 옷이어야 한다.



장인匠人은 완성을 추구한다. 아르마니에게 있어서 패션의 완성은 옷의 디자인, 옷의 소재, 옷의 액세서리, 모델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면서도 품격있는 디자인, 시각과 기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소재, 적절하면서도 절제된 액세서리의 배치, 장인의 정성과 기술이 투자된 공정, 완제품으로서의 옷을 전체에서 디테일까지 전시展示해 낼 수 있는 좋은 모델... 이 모든 것이 ‘사람 몸을 위하는 옷’일 때 아르마니의 패션은 완성되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3장에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새 사람New self이라는 옷을 입으라(10절)’ 하면서  
그 옷은 인간과 그들의 생을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패션철학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sup>3</sup>  
의복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옷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옷의 소재는  
그리스도이다. 이 옷의 액세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향기이다. 이 옷을 입고 그 진가를 보여준  
모델은 인자人子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지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요Christ is all, and is  
in all(11절)’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 의상에 대해 내레이션  
Narration한다: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옷을 입으십시오(12~13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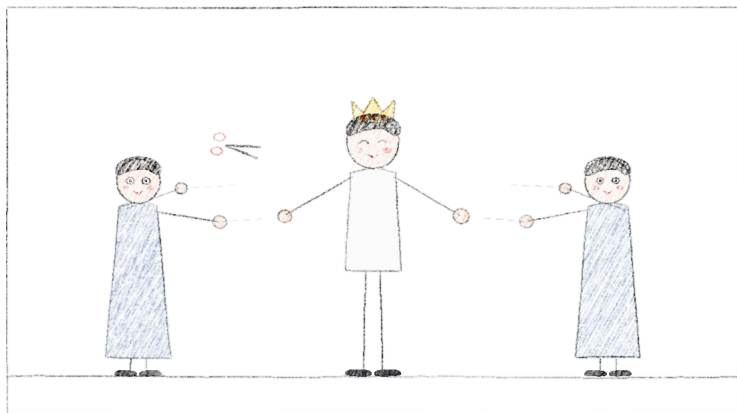
3 “Put on the new self,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v.10)”

‘새 사람이라는 옷’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닮은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패션철학은 ‘예수 닮게 하는 옷’이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 닮은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별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임금님이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당했던 이유는 임금님의 지나친 옷욕심과 과시욕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기꾼들은 다름 아닌 패션 디자이너가 된다.

임금님만을 위한 옷이기에 그의 몸치수를 재고 재단을 하는 척을 한다. 원래 없는 천이지만 그것으로 옷을 열심히 만드는 듯한 사기꾼들의 시늉에 임금님은 반신반의半信半疑하면서도 끝까지 가게 된다.

그 결과야 세상 사람 모두가 알듯 수치와 헛물이었다. 임금님의 옷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었기에 완성되었다 한들 여전히 없는 것이다. 하여 선인이든 악인이든 볼 수 없다. 오직 옷을 걸치지 않은 임금님의 별거벗은 몸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임금님에게 그 동안의 날들은 분명 행복이었다.  
세상에서 유일한 최고의 디자인으로 제작되고 있는  
명품옷이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임금님에게 그 기쁨은 분명히 있는 실재였다.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입고 살 옷’을 필요로 한다.  
아르마니가 디자인한 ‘의상衣裳으로서의 옷’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의식意識으로서의 옷’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로 ‘입을  
옷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우선 <별거벗은 임금님>의 임금처럼 ‘입지 못할 없는 옷’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밤낮으로 수고하는(사55:2) 허망한 현실을 살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이 신神이라 해도, 고상高尚의 극치라 해도 ‘입을 수 없는 옷’이다.

없는 것을 시작으로 온갖 공정을 한들 남는 것은 오직 ‘입을 수 없는 옷’이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옷’이라는 공정의 명칭에 현혹되어 죽기 전에 이미 적신赤身이 되어 살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실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고결하고 생동하게 살려내는 ‘새 사람의 옷’을 입수할 수 있는 Available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옷을 구입해서 입어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의식 전체를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이 변화시키는 ‘새 사람의 옷’은 앞서 바울 사도가 내레이션한 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입고 살기에 ‘안성맞춤’인 ‘바로 그 옷 The very clothes’이다.

아르마니 브랜드 의상은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 내 옷으로 입을 수 있다.

‘몸을 위한 옷’, ‘일상의 생활을 위한 옷’이라 해도 모든 사람을 위한 옷은 아닌 것이다. 아르마니 자신 역시 자신의 옷과 패션철학을 세계민의 3%만 이해해 주어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하였다.

‘새 사람의 옷’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불해야 내 옷으로 입고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무 짓도 안 해도 그 옷을 갖게 되는 것인가? 감히 값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Priceless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Given for free해서 값없이 이루어졌다고Done by nothing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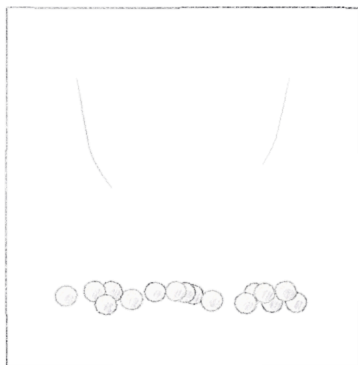
‘새 사람의 옷’이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해서 일체의 지불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값진 것을 위해 자신의 값진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중 가장 큰 복일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무엇을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 그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 which binds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결국 ‘사랑’이다. ‘사랑의 마음과 행동’을 지불해야 ‘새  
사람의 옷’은 내 옷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입수 가능해진 ‘새 사람의 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해 그 옷을 디자인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입수  
가능케 하신 이유인 ‘사랑’을 깊이 또 깊이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을 위한 ‘천상天上의 의복衣服’인 것이다.

‘사랑의 마음과 행동’ 없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산다 할  
사람은 절대로 없다. 잠시 빌렸으므로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할 다른 이의 옷이다. 혹은 지불함 없이 거저  
가져와 사용하는고로 옷의 진가와 존재이유를 알지  
못한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도 ‘옛 사람의 사랑없는  
삶’을 산다. ‘새 사람의 옷’은 ‘사랑’으로만 사서  
입고 다닐 수 있다.

‘사랑’은 ‘새 사람의 옷’을 위한 가격이요, 디자이너의 패션철학의 완성이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All other virtues 줄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낱알로 흩어질 뿐이다. ‘사랑’은 천국패션의 완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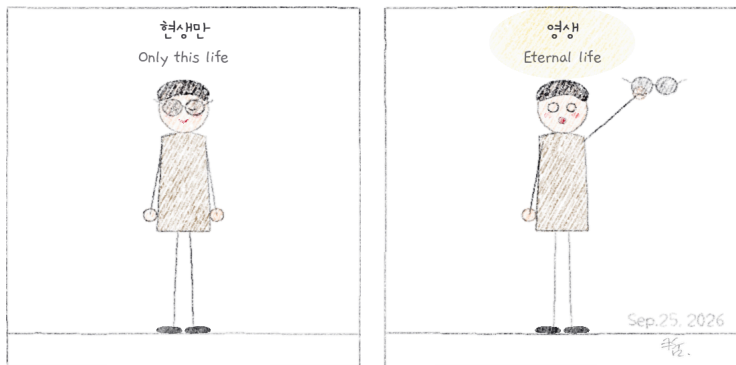
## 사랑은 그중에 제일이다

영원은 내일이 끊이지 않는 오늘이다. 지금 이생을 죽음으로 마감한 사람에게는 영생 외에 그 어떤 좋은 것도 필요가 없다. 신앙인은 육체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믿고 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육신의 사망 순간에도 오늘을 맞이한다.

하여 사람의 생이란 육체의 죽음으로 끝면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생과 죽음 그리고 영생으로 한 방향의 선을 그려낸다.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죽음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 더욱더 실제적으로 작용한다.

신앙의 세계에서 죽음은 ‘가치의 척도’이다. 죽음은 ‘현생만 Only this life’이라는 렌즈를 장착한 안경을 두 손으로 벗겨 준다. 그리고 ‘영생 Eternal life’이라는 각막이식수술을 집도한다.



나안裸眼으로도 인생 본연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추구할 만한 좋은 것들 중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골라 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될 인생 곧 자신의 영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9절에서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논한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이다. 나의 주님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다. 믿음으로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영원한 생활에서 가치 있게 사용될 것도 역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여 이생에서도 중요시해야 할 가치 역시 믿음이라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다른 것들을 믿음과 비교할 때 그 가치의 차이는 정금과 배설물이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주어진다: ‘왜 믿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인생물품인가?’. 질문에 대한 답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울 사도가 영생을 향해 이생을 살고 있는, 이생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최고 최상의 선물이 바로 이 말씀이다: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믿음뿐이다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이생-죽음-영생’이라는 인생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창조주와 구세주의 세계 곧 영원한 천국에서 가치 있게 인정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가치세계에서 믿음의 위상은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귀중한 믿음은 마음에 있는 사랑을 밖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창조된다. 믿음의 생성 시점이다.

말과 표정, 물질과 마음의 배려, 기도와 도움의 손길…  
이렇게 표현하고픈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믿음 없이는 영원세계의 주재主宰이신 하나님께  
어떠한 가치도 드릴 수 없다.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분이 중요하게 카운트Count하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사랑을 품고 행동하는 순간 그 행동은 상대를  
향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 사랑을 통한 행동 자체가  
믿음을 이미 포함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랑없는  
믿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또한 믿음을 품지 않는 사랑은 내일이 없다. 나만을 위한  
사랑,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한 사랑, 이익을 염두에 둔  
사랑… 이런 사랑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없다.  
믿음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지만 이생에서는 가능한  
사랑이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장래의 소망이 없으므로  
오늘의 기쁨이 없다.

이런 사랑의 결국은 언제나 과거이다. 영생은 고사하고  
내일 한 날도 생존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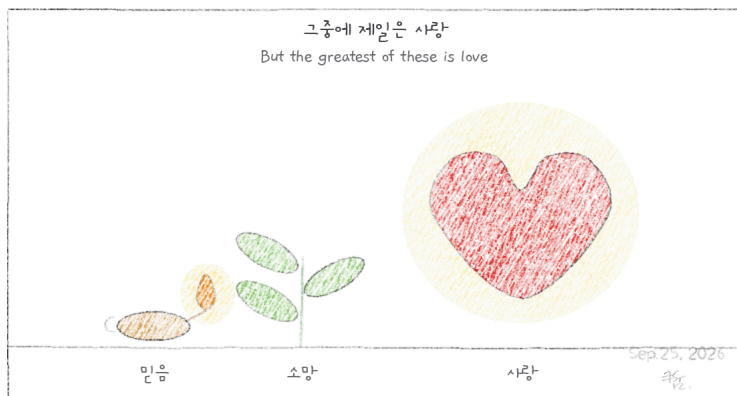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영생의 자유이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피와 생명으로 자유케 하신 자유한  
자들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가치 없는 것들은 우리를 종되게 하는 이생의 멍에이다.  
이러한 멍에에서 자신을 자유케 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자유를 쏟아 사용하라는 권고이다. 영원한  
가치는 사랑을 품은 사람의 믿음이다. 사랑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믿음의 오늘이다. 영생은 이런 사람의 오늘로  
시작되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인생이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다른 좋은 것들 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영원한 인생의 가치 품목들이다.  
이생에서 남는 것은 적신赤身이다. 아무것도 없다. 무無  
Nothing만이 적나라하게 남겨진다. 결국 영생까지 지참  
가능한 것은 이 땅에서 품고 키우고 표현한 사람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바울 사도는 이생에서 영생을 준비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역사하는 믿음, 사랑할 때 탄생하는 기쁨 주는 소망...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영원한 가치로 남아 있을 소중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사랑은 그중에 제일이다.

하여 사랑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절대 가난의 인생이다Without having love, I gain nothing(고전13:3). 사랑으로 사는 인생은 여러 방식의 삶 가운데 단연 으뜸인 삶의 방식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까지 그를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최고의 가치품을 소유하고 있는 이 땅 제일의 인생이다.





사랑하는 이들은 서로에게  
지우개가 되어야 한다.

사랑은 4형식이다: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

사랑은 그중에 제일이다.

사랑은 이